



EF EPI

EF English Proficiency Index



P.10 브릭스(BRICs)



P.18 유럽



P.22 중남미

목차

04	EF EPI 제4판에 대하여
06	개요
08	EF EPI 순위
10	브릭스(BRICs)
14	아시아
18	유럽
22	중남미
26	중동 및 북아프리카
30	영어와 경제적 경쟁력
32	영어로 비즈니스 수행하기
34	영어와 삶의 질
36	영어와 공교육
37	영어와 기술
38	결론
40	전망: EF EPI와 언어 평가의 혁신
42	부록A: EF EPI 제4판에 대하여
43	부록B: CEFR 레벨과 단계별 능력수준
44	부록C: EF EPI 국가별 점수
46	부록D: 인용자료

EF EPI 제4판에 대하여

EF EPI(EF English Proficiency Index: EF 영어 능력 지수) 제4판은 총 63개 국가 및 자치령을 평가 대상으로 합니다. EF는 국가별 순위 산정을 위해 2013년에 EF 영어 시험을 치른 18세 이상 성인 75만 명의 평가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아울러 EF는 2007년까지 지난 7년을 되돌아 봅니다. 2007년부터 EF는 어떤 국가와 지역의 영어 능력이 향상되었고 그렇지 않은지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EF EPI 데이터를 확보해오고 있습니다. 평가 방법 관련 세부 정보를 확인하려면 42페이지의 “EF EPI 소개”를 참조하십시오.

첫 번째 섹션에서는 아시아, 유럽, 중남미, 북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에 새롭게 등장한 지역별 트렌드를 분석하고, 이와 함께 브릭스(BRICs) 국가(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상황도 검토합니다. 이 섹션들은 글로벌화된 인력 교육과 관련된 과제와 전략의 다양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지역별 분석을 마무리하면 영어 능력과 다양한 사회 및 경제적 척도의 상관관계를 검토합니다. 검토를 위한 척도에는 소득, 비즈니스 수행의 용이성, 삶의 질, 평균 교육 기간, 인터넷 이용률 등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EF EPI가 처음으로 EF 표준 영어 시험 (EF Standard English Test)을 활용할 예정인 내년을 전망합니다. EF 표준 영어 시험은 보다 많은 언어 학습자에게 양질의 영어 시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EF가 개발한 새로운 영어 평가 방법입니다.





개요

EF EPI 제4판은 63개 국가와 자치령의 성인 영어 능력을 순위로 매긴 자료입니다.



2014년 현재 글로벌 경제에서 영어 사용 능력이 핵심 역량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지만, 국가별 영어 교육법은 다르며 각국의 우려사항, 제약 및 해결책도 제각각입니다. 때로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과 같이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국제 행사가 성인 학습 계획의 근간이 되기도 합니다. 경제적 난관에 직면하여 국제화와 성장을 위한 일종의 촉매제로 영어를 활용하지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각국의 고위 공무원들은 영어가 자국어에 위협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교육 현장에서 새로운 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원의 교사를 양성하는 방법을 고민하며, 적합한 평가 도구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영어 교육법 관련 논의가 각국의 교육계에서 지속되는 가운데,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영어 회화를 연습해볼 수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대졸자는 영어 학습을 위해 해외로 향합니다.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직장인은 저녁 시간을 온라인 학습으로 보내고, 기업은 영어 실력이 우수한 지원자를 우대합니다. 대부분의 교육 시스템이 제공하는 영어 교육과 학부모, 학생 및 고용주 간의 기대치에는 아직도 커다란 격차가 존재합니다.

EF EPI 제4판에서는 이전의 발표 내용에서 조사했던 지역 및 인구통계적 트렌드 중 상당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F는 매년 국제 영어 능력 지수를 산출하면서, 지역별 영어 수준과 남녀 및 세대간 영어 실력 격차에 관한 분석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최신 자료를 통해 다음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국가와 주민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세계적으로 성인의 영어 능력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거의 모든 조사 대상국에서 여성의 영어 실력이 남성보다 우수합니다. 남녀 간의 이러한 실력 차는 무시 못할 수준이어서 직장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성별간의 영어 실력이 상대적 차이가 있는 원인을 파악하는 일이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 전 세계적으로 한창 업무에 종사하는 연령대의 성인이 다른 모든 연령 집단보다 영어 실력이 우수합니다.
- 이러한 결과는 젊은 대졸자의 업무 수행 준비 상태에 의문을 갖게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결과는 성인이 전통적인 학교 환경 밖에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유럽의 영어 실력은 다른 지역에 비해 여전히 훨씬 우수하며, 꾸준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 아시아 국가들의 능력 수준은 양호에서 불량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국가에 따라 지속적인 능력 정체와 더불어 급격한 능력 향상 경향도 보여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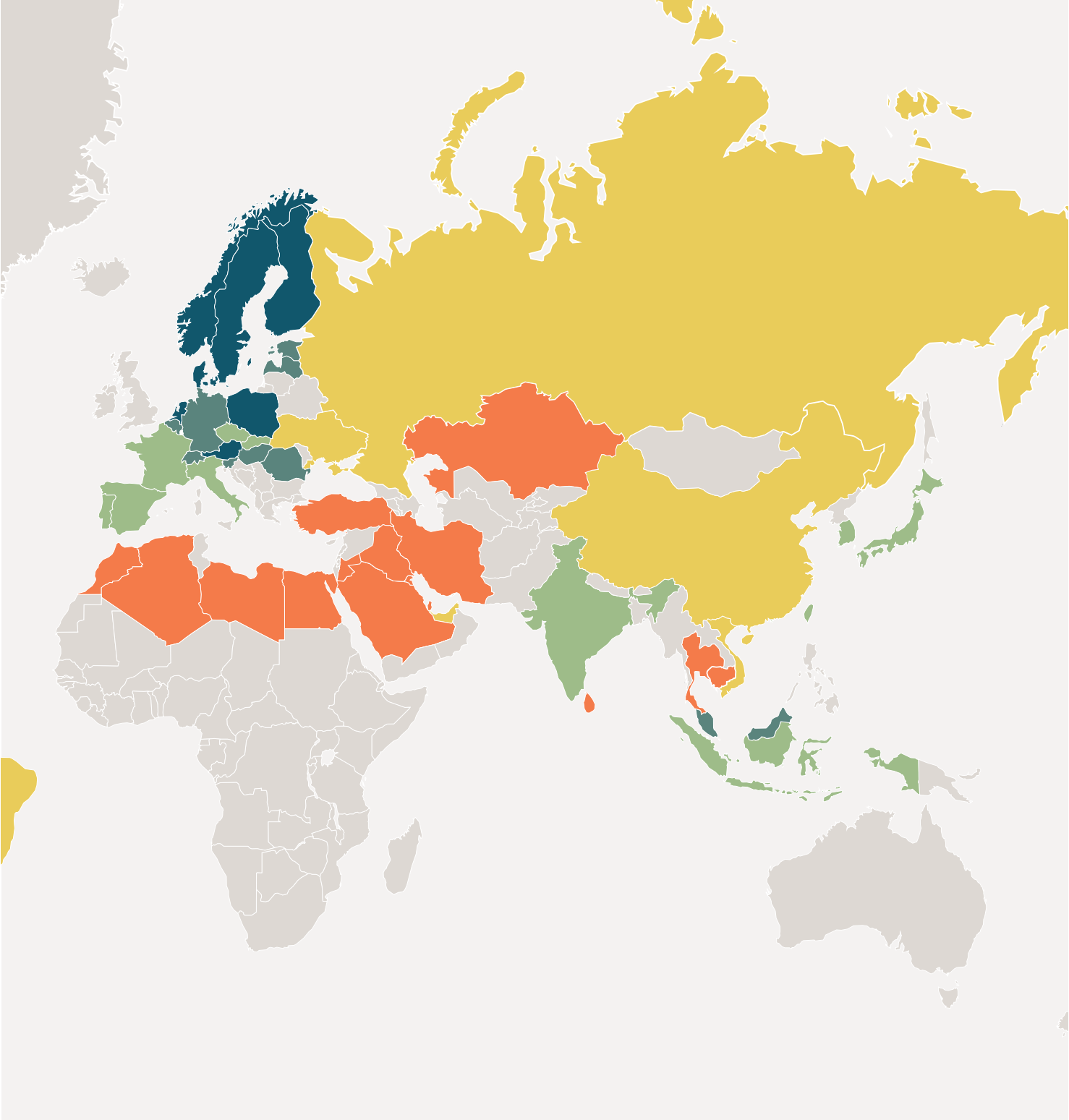
• 중남미,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거의 모든 국가의 영어 능력은 미흡이나 불량에 해당합니다

• 이 지역에 속하는 일부 국가의 능력이 향상되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그렇지 못합니다. 영어 능력과 소득 수준, 삶의 질, 비즈니스 수행의 용이성, 인터넷 이용률 및 교육 년수의 상관관계는 강력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상관관계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화됩니다.

2014년 EF EPI 순위

우수			미흡		
01	덴마크	69.30	32	아랍 에미리트	51.80
02	네덜란드	68.99	33	베트남	51.57
03	스웨덴	67.80	34	페루	51.46
04	핀란드	64.40	35	에콰도르	51.05
05	노르웨이	64.33	36	러시아	50.44
06	폴란드	64.26	37	중국	50.15
07	오스트리아	63.21	38	브라질	49.96
양호			부족		
08	에스토니아	61.39	39	멕시코	49.83
09	벨기에	61.21	40	우루과이	49.61
10	독일	60.89	41	칠레	48.75
11	슬로베니아	60.60	42	콜롬비아	48.54
12	말레이시아	59.73	43	코스타리카	48.53
13	싱가포르	59.58	44	우크라이나	48.50
14	라트비아	59.43	45	요르단	47.82
15	아르헨티나	59.02	46	카타르	47.81
16	루마니아	58.63	47	터키	47.80
17	헝가리	58.55	48	태국	47.79
18	스위스	58.29	49	스리랑카	46.37
보통			50	베네수엘라	46.12
19	체코 공화국	57.42	51	과테말라	45.77
20	스페인	57.18	52	파나마	43.70
21	포르투갈	56.83	53	엘살바도르	43.46
22	슬로바키아	55.96	54	카자흐스탄	42.97
23	도미니카 공화국	53.66	55	모로코	42.43
24	대한민국	53.62	56	이집트	42.13
25	인도	53.54	57	이란	41.83
26	일본	52.88	58	쿠웨이트	41.80
27	이탈리아	52.80	59	사우디아라비아	39.48
28	인도네시아	52.74	60	알제리	38.51
29	프랑스	52.69	61	캄보디아	38.25
30	대만	52.56	62	리비아	38.19
31	홍콩	52.50	63	이라크	38.02





영어능력지수 레벨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부족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브릭스 국가의 가속화된 개혁이 보여준 가능성

브릭스는 세계 10대 경제권에 속해 있으며 이들 국가의 인구를 합치면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므로, 하나의 그룹으로 특별히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4개 브릭스 국가 가운데 3개국(중국, 러시아, 인도)이 최근 올림픽을 개최했거나 곧 개최할 예정이며(2008년 베이징, 2014년 소치,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이들 국가는 모두 광범위한 영어 교육을 위한 촉매제로 올림픽을 활용했습니다.

교육 분야에 대한 대규모 공공 및 민간 투자에 힘입어, 브릭스 4개국의 영어 실력은 꾸준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4개국 모두 7년 전에 비해 EF EPI 점수가 높아졌으며, 각각의 점수는 2.50점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인도는 상당한 발전을 보였습니다. 인도는 2007년에는 중국에 뒤처졌지만, 지난 2년 사이에 브릭스에서 가장 실력이 우수한 국가로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중국, 러시아의 성인층 영어 실력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인도가 이 3개국을 근소하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성장 중인 다른 경제권과 마찬가지로 브릭스도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국제화는 발전의 주요 요소이므로, 각국 정부와 민간 부문은 영어 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브라질

브라질 정부는 '국경 없는 과학(Science Without Borders)'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전공 학생 10만 명을 해외로 보낼 당시, 상당수의 학생들이 영어 능력이 부족해 이 프로그램 이수 자격을 얻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에브라질 교육부는 이른바 '국경 없는 영어(English Without Borders)'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대학생 500만 명이 온라인 영어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해외 유학을 원하는 50만 명에게는 TOEFL 시험을 무료로 볼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민간 부문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이 사립 학교를 인수하면서 브라질의 영어 교육 시장이 3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여 중남미 최대의 영어 교육 시장이 되었습니다.

중국

75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중국의 영어 교육 시장은 중국 전역에 걸쳐 고르게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학 입학을 위한 영어 자격 요건이 변경되면서, 학생들의 영어 학습량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중국 최고의 명문 대학들은 다른 분야의 입학 시험에서는 영어 시험을 유지했지만, 특히 공학이나 예술 등의 일부

학위 과정을 위해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입학 시험에서는 영어 시험을 제외했습니다. 베이징 교육 당국은 2016년부터 표준 대학 입학 시험인 가오카오(高考)의 영어 영역 비중을 낮출 계획입니다. 다른 지역의 교육 당국들도 유사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가 초중등학교 교과 과정과 영어 사교육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러시아

최근 글로벌화를 진행하는 러시아 시장에서는 영어가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러시아 웹사이트는 새로운 비즈니스 및 여행 기회에 대응하면서 실시간 개인 교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학교 영어 수업에 비해, 이러한 사설 온라인 강좌는 듣기와 말하기 능력을 크게 강조하면서 대화식 수업을 제공합니다. 러시아의 영어 교육 시장이 성장하고는 있지만(3억 달러 이상의 규모로 추정), 나머지 브릭스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규모가 작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영어 교육 시장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도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러시아 영어 교육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인도

과거의 식민지 역사로 인해 인도는 영어 사용국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가장 신뢰도 있는 자료에 따르면, 식민지 시대에도 어떤 식으로든 영어를 사용한 인도인은 5% 미만에 불과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근 인도는 1억 2,500만 명 이상(인도 인구의 약 10%)이 영어를 사용하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영어 사용 인구가 많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언어적 다양성이 풍부한 국가에 속하는 인도는 교육 제도에 75개 언어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35개 주 가운데 33개 주가 인도에서 가장 흔히 배울 수 있는 외국어인 영어를 교과 과정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교육의 매개체로 영어를 활용하는 사립 학교가 인기를 끌면서, 인도의 주정부들은 더욱 많은 공립 학교가 영어를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영어 중시 추세 덕분에 영어 실력이 대체로 향상되었지만,

아직 몇 가지 해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해결 과제는 전국적인 영어 교사 부족 현상입니다.

향후 해결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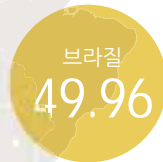
브릭스 국가들을 분석해보면 영어 능력 향상과 관련하여 몇 가지 공통 과제가 대두됩니다. 모든 브릭스 국가에서 각급 공립 학교의 영어 교육 수준은 부유한 지역과 가난한 지역, 그리고 도시와 농촌 지역 간에 현격한 차이를 보입니다. 브릭스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문화적 다양성이 풍부할 뿐 아니라 국토 면적이 매우 넓어, 보편적인 교육 기준을 적용하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최우수 학생을 입학시키려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명문 대학들은 영어를 교육의 매개체로 채택하고는 있지만, 교수들의 영어 강의 준비 수준은 제각각입니다.

현재 상당수의 브릭스 국가 교사들이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법을 익히고 있지만, 학급당 학생수(60명-80명인 경우도 있음)가 지나치게 많고, 교과 과정과 교재의 융통성이 부족하며, 문법 위주의 획일적인 시험을 치르는 경우가 많아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법을 항상 적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많은 교사들이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필수적인 말하기 연습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합니다.

성장 중인 이 대규모 경제권 전역에서 영어 능력의 필요성은 공통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7년간 브릭스 국가 성인층의 영어 실력은 향상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말하기 실력은 대부분 전문적으로 영어를 구사할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풍부한 노동력에게 영어가 경쟁력이 되게 하려면, 각국의 교육 당국은 지속적으로 공립학교 교사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켜야 하고, 주요 시험을 의사소통 능력 위주로 개편해야 하며, 교사들이 수업 중에 의사소통 교육법을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브릭스 국가

EF EPI 순위
 인도 #25
 러시아 #36
 중국 #37
 브라질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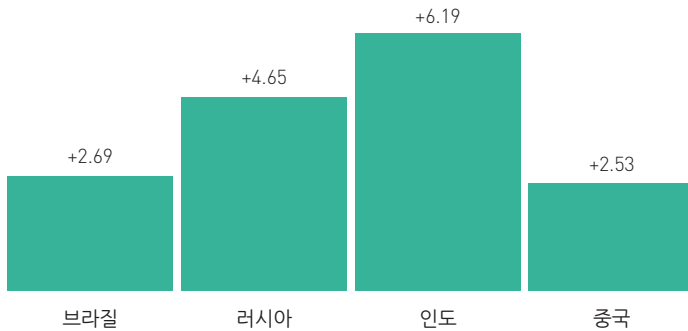
영어능력지수 레벨



EF EPI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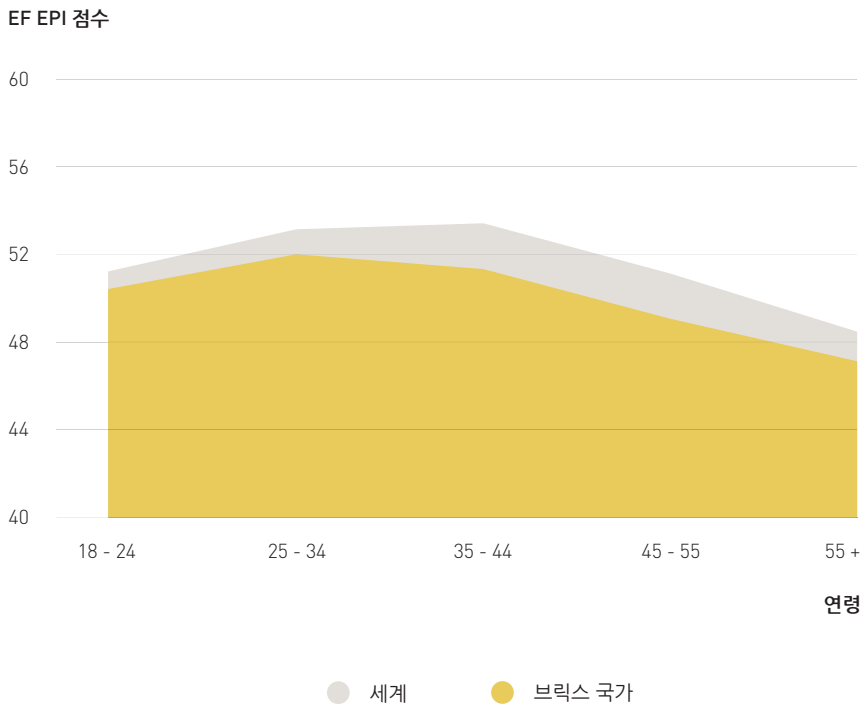
4개국 모두 7년 전에 비해 EF EPI 점수가 높아졌으며, 각국의 점수는 2.50점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인도는 상당한 발전을 보였습니다. 인도는 2007년에는 중국에 뒤처졌지만, 지난 2년 사이에 브릭스에서 가장 실력이 우수한 국가로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중국, 러시아의 성인층 영어 실력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인도가 이 3개국을 근소하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EF EPI 점수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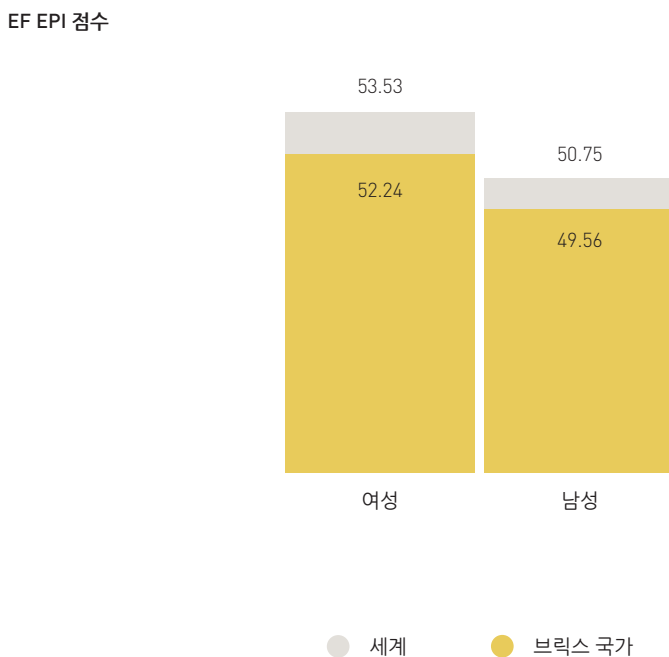
연령대별 영어실력

한창 업무에 종사하는 연령대(25세~34세, 35세~44세)의 영어 능력 수준이 가장 우수합니다. 이에 비해 초기 성년기(18세-24세)의 사람들은 다소 실력이 뒤쳐졌고, 당연히 45세 이상 연령대의 영어 실력이 가장 부족했습니다. 브릭스 국가는 모든 연령대의 영어 실력이 세계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별 영어 실력

브릭스 국가 전체에서 남녀간 상당한 영어 실력 격차가 나타납니다($p < 0.001$). 여성의 영어 실력이 남성에 비해 우수하지만, 브릭스 국가 남녀의 점수는 모두 세계 평균에 미치지 못합니다.





아시아

아시아 국가들은 연수에 집중투자 계속

아시아 지역의 성인 영어 실력은 꾸준히 향상되고 있지만, 향상 속도는 국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2007년 이후 아시아 지역의 EF EPI 평균 점수는 3.52점 높아졌으며, 이는 유럽 평균 향상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아시아 언어가 아니라 영어가 아시아 대륙의 공통 언어입니다. 아시아 내의 두 주요 국제기구인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은 영어를 공식 언어로 채택했습니다.

일반적인 지역적 트렌드와는 달리, 아시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발전한 일부 지역은 영어 능력의 두드러진 향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OECD 국제학생평가 프로그램(PISA) 결과에 따르면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몇몇 교육 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상하이, 타이페이, 홍콩, 싱가포르, 대한민국, 일본은 읽기, 수학, 과학 등의 과목에서 최고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 영어 능력이 '양호' 수준인 곳은 싱가포르가 유일합니다. 대한민국, 홍콩, 일본은 지난 7년간 영어 교육에 많은 투자를 했지만 실력 향상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성적 차이는 영어 교육법과 다른 과목 교육법의 차이에 관한 의문을 불러 일으킵니다.

동남아 3국의 발전은 확연히 나타납니다.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은 모두 지난 7년간 7점 이상 향상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향상 속도를 보였습니다. 이 기간 중 인도네시아가 홍콩, 대만, 일본을 따라잡았습니다.

급진적인 개혁을 시작한 베트남

베트남은 작년에 PISA에 처음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베트남은 65개 국가 및 자치령 가운데 17위를 차지하면서 읽기, 수학 및 과학에서 미국과 영국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했습니다. 1인당 GDP가 1,600 달러에 불과한 베트남은 PISA 연구에 참여한 국가 중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베트남은 영어 교육 분야에서도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베트남 정부는 그러한 발전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2008년에 베트남 정부는 결의안 1400호를 통과시키면서 2020년까지 "외국어가 베트남 인민을 위한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2008년에서 2020년까지 외국어 교육에 4억 5,000만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며, 이 예산의 85%는 교사 양성에 책정되었습니다.

베트남 국가 외국어 프로젝트 2020의 사무총장인 투 안 티 부 박사(Dr. Tu Anh Thi Vu)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영어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언어이다. 글로벌화를 추진 중인 베트남은 언어 교육 개혁에 매진하고 있다. 베트남은 이러한 개혁 과정에서 의사 소통 목적을 위한 영어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프로젝트 2020의 초대 대표인 흥 엔고크 엔구엔 박사(Dr. Hung Ngoc Nguyen)는 다소 신중한 입장입니다. "프로젝트 2020'의 성공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민간 부문에서 영어 교육에 엄청난 돈을 지출했지만, 각국 정부는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상하이와 비슷한 경로를 밟는 홍콩

엔구엔 박사의 지적은 특히 대한민국, 홍콩 및 일본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들 국가는 지난 7년간 교육에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 영어 수준이 향상되지 않았습니다. 홍콩은 2007년부터 실력이 조금씩 하락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평균 영어 수준이 높아지고 2개 언어를 구사하는 노동력이 증가하면서,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중국의 주요 도시들은 국제 아시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은 홍콩이 싱가포르와 함께 이러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2013년에 McKinsey & Company 홍콩의 조 엔가이(Joe Ngai) 대표가 '홍콩의 대졸자를 채용하느니 차라리 표준 중국어와 영어 실력이 뛰어난 중국 본토 출신의 대졸자를 채용할 것'이라고 발언하여 언론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상하이 성인이 홍콩 성인보다 영어 능력 지수가 상당히 높았고, 베이징과 텐진 성인이 홍콩 성인과 비슷한 점수를 획득했습니다 (상세 정보를 확인하려면, www.ef.co.kr/epi에서 중국 데이터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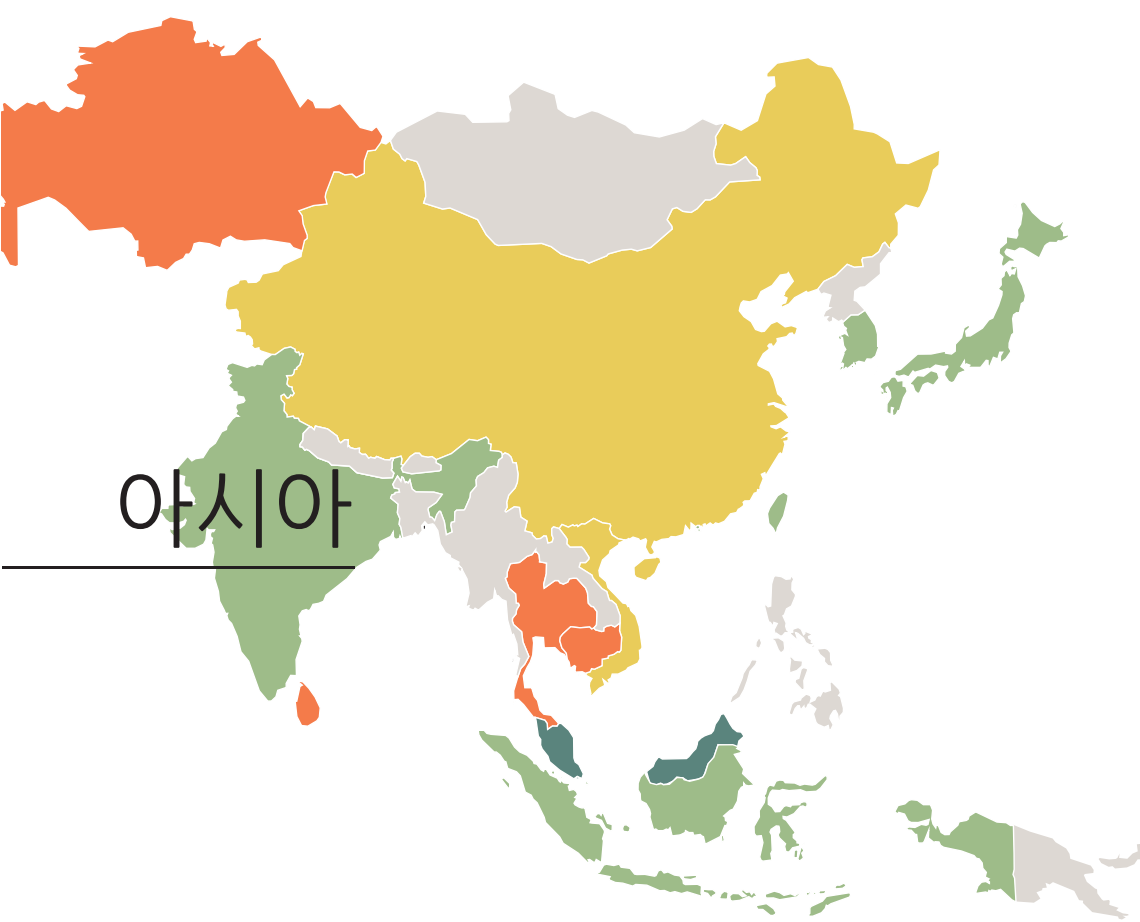
대한민국과 일본의 부진

대한민국은 사교육 부문에서 1인당 영어 교육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EF EPI 점수는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어 교육을 개선하려면 학생의 실질적인 의사소통 능력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사를 양성해야 하며, 문법과 어휘 중심의 시험 방식을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 언어 교육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입니다.

일본의 교육 제도도 영어 교육과 관련하여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은 기존의 교수법 쇠신을 위해 새로운 개혁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올해 초 일본 문부과학성은 전례 없이 4개월간 지속된 시도를 통해, 영어 교육 관련 일부 회의를 영어로 진행했습니다. 메이지대학교와 리츠메이칸대학교를 비롯한 주요 대학 몇 곳은 영어로만 강의를 진행하는 학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2020년에 도쿄에서 하계 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영어 교육에 추가 예산이 투입되면서 언론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및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은 영어 능력 향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많습니다. 아시아 지역에는 태국과 캄보디아 같은 성적이 매우 저조한 국가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같은 성적이 우수한 국가도 포함됩니다. 아시아의 영어 수준은 다양하지만, 모든 국가들은 하나같이 지속적인 성장 및 개발을 위한 영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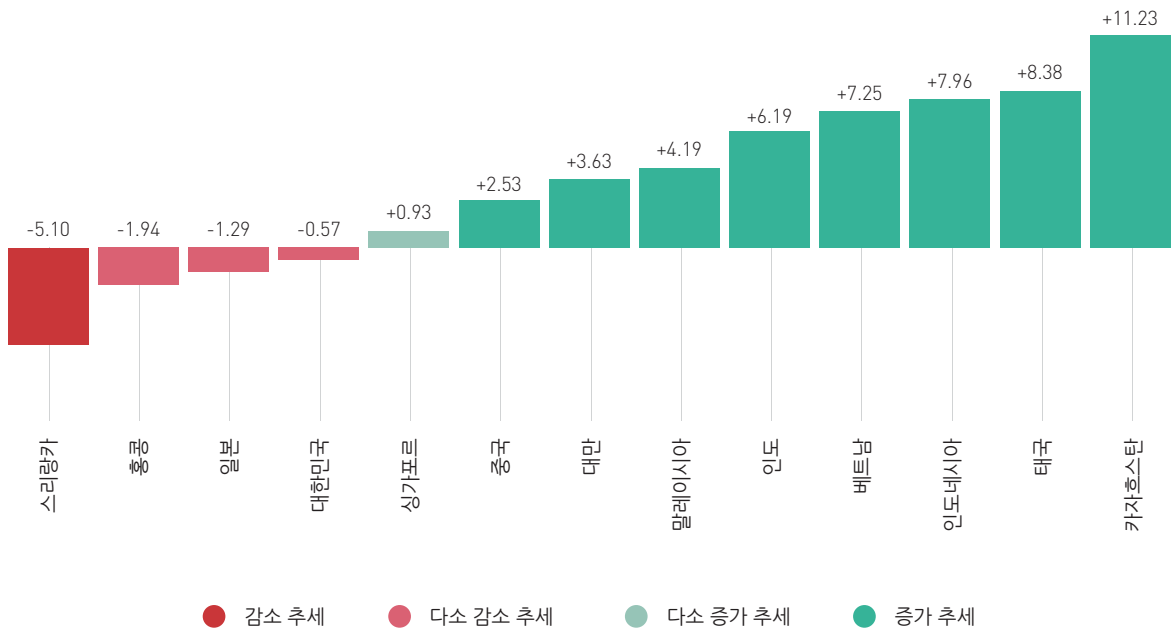


영어능력지수 레벨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부족

EF EPI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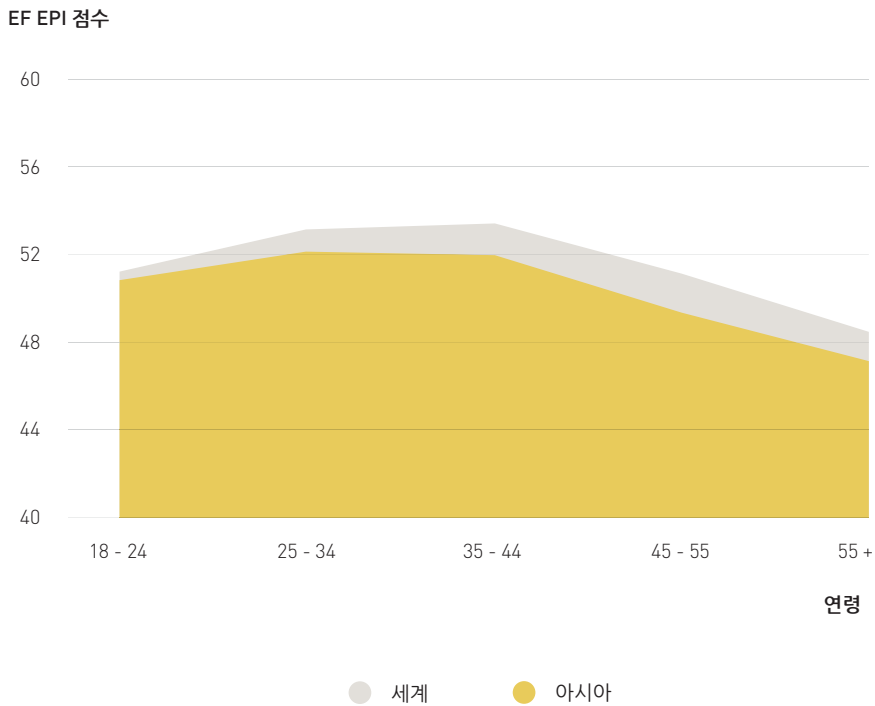
2007년 이후 아시아 지역의 EF EPI 평균 점수는 3.52점 높아졌으며, 이는 유럽 평균 향상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일반적인 지역적 트렌드와는 달리, 아시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발전한 일부 지역은 영어 능력의 두드러진 향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EF EPI 점수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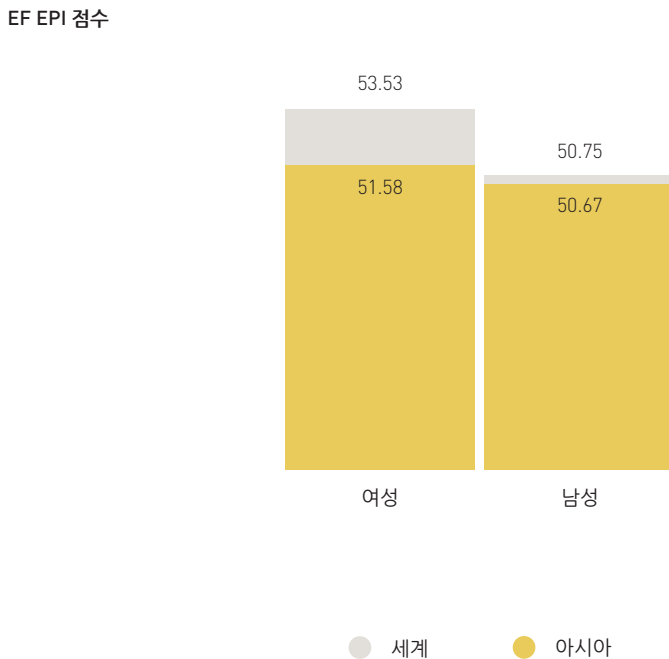
연령대별 영어실력

아시아의 세대 간 격차는 글로벌 트렌드와 일치합니다. 즉, 한창 업무에 종사하는 연령대(25세~34세, 35세~44세) 영어 능력이 가장 우수하며, 초기 성년기(18세~24세)와 45세 이상 연령대의 사람들이 차례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아시아 모든 성인 연령대의 영어 실력은 세계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별 영어 실력

아시아 여성은 아시아 남성보다 성적이 우수하지만($p < 0.01$), 아시아의 남녀 간 격차는 글로벌 남녀 간 격차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아시아 여성이 획득한 점수가 글로벌 여성 평균보다 거의 2점 정도 낮기 때문입니다.





유럽

영어에서 아직도 강세를 보이는 유럽

유럽 성인의 영어 능력은 상당히 우수합니다. 올해 EF EPI의 상위 22개국 중 19개국이 유럽 국가이며, '우수' 수준 국가도 모두 유럽 국가입니다. 이러한 강세는 EF 영어 능력 지수가 첫선을 보인 후 지속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유럽의 영어 실력이 이미 우수하지만 계속 향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07년 이후 유럽의 평균 EF EPI점수가 3.59 점 향상했습니다. 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위스 등을 비롯한 상당수 국가가 이러한 지역 평균만큼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짧은 기간에 능력을 향상시킨 폴란드, 헝가리 및 스페인

이 유럽 3국은 짧은 기간에 영어 실력을 향상시킨 점이 두드러집니다. 2007년 이후 폴란드의 영어 능력 수준 향상은 유럽 국가 중 가장 두드러집니다. 이러한 결과는 폴란드의 변화를 추적해온 다른 교육 지표들과 일맥상통합니다. 폴란드의 수학, 읽기 및 과학 분야의 최근 PISA 점수는 유럽 최고 수준에 속합니다.

폴란드는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지속적인 동기 부여, 대학 정원 확대, 교육 성과의 평등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교육 제도를 철저히 정비했습니다. 그 결과 폴란드 노동력의 국제 이동성과 교역 담당 역량은 점차 강해지고 있으며, 폴란드 경제는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헝가리 성인들도 대부분의 유럽 국가 성인들에 비해 영어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헝가리는 대대적인 교육 개혁을 통해 대학 제도를 유럽 기준에 맞추었고, 이에 따라 중등 저학년과 고학년에서외국어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헝가리 대학들은 학생들의 외국어 실력을 충분히 검증한 후에 학위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헝가리는 아직 교육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지만, 전체 교육 과정에 외국어 교육을 포함시켰고 이미 그에 따른 효과가 성인 영어 실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페인도 영어 교육에 대한 태도에 상당한 변화를 보였고, 그에 따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영어를 스페인어 및 수학과 더불어 일곱 가지 기본 능력 가운데 하나로 규정했습니다. 1995년부터 스페인의 일부 지역에서는 공립 초등학교를 이중 언어 교육 학교로 전환하여, 학생들의 일과 중 30%는 영어를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스페인 정부는 2015년까지 공립학교의 절반을 이중 언어 교육 학교로 전환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다른 경제적 요인이

스페인 경제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는 있지만, 청소년을 위한글로벌 경제에 걸맞은 필수 능력 교육은 확실히 현명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 트렌드에 역행하고 있는 노르웨이

일부 유럽 국가들은 영어 실력 향상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고 거의 모든 유럽 국가들의 영어 능력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지만, 두 개의 국가는 이러한 트렌드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유럽 국가 중 지난 7년에 걸쳐 영어 능력이 크게 하락한(4.76점 하락) 유일한 국가입니다. 대체로 노르웨이 성인의 영어 실력이 우수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결과는 더욱 놀랍습니다.

그러나 EF EPI 점수가 노르웨이 교육 제도의 문제점을 나타내주는 유일한 지표는 아닙니다. 지난 20년간 OECD는 노르웨이의 교육 시스템이 교육의 질보다는 평등에 지나치게 중점을 둔다고 크게 비판해왔습니다. 노르웨이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학생 1인당 훨씬 많은 교육 예산을 지출하고 있지만, 수학, 과학 및 읽기 성적은 OECD 평균에 불과합니다.

지난 10년간 노르웨이의 대학들은 교과 과정을 유럽 기준에 맞추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낙제생 비율(현재 30% 이상)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일련의 개혁 조치를 통해 교육 제도의 수준이 높아졌지만, 교사들은 교육 개혁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영어 실력이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영어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면 향후 몇 년에 걸쳐 성인의 영어 능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에서 최하위권인 프랑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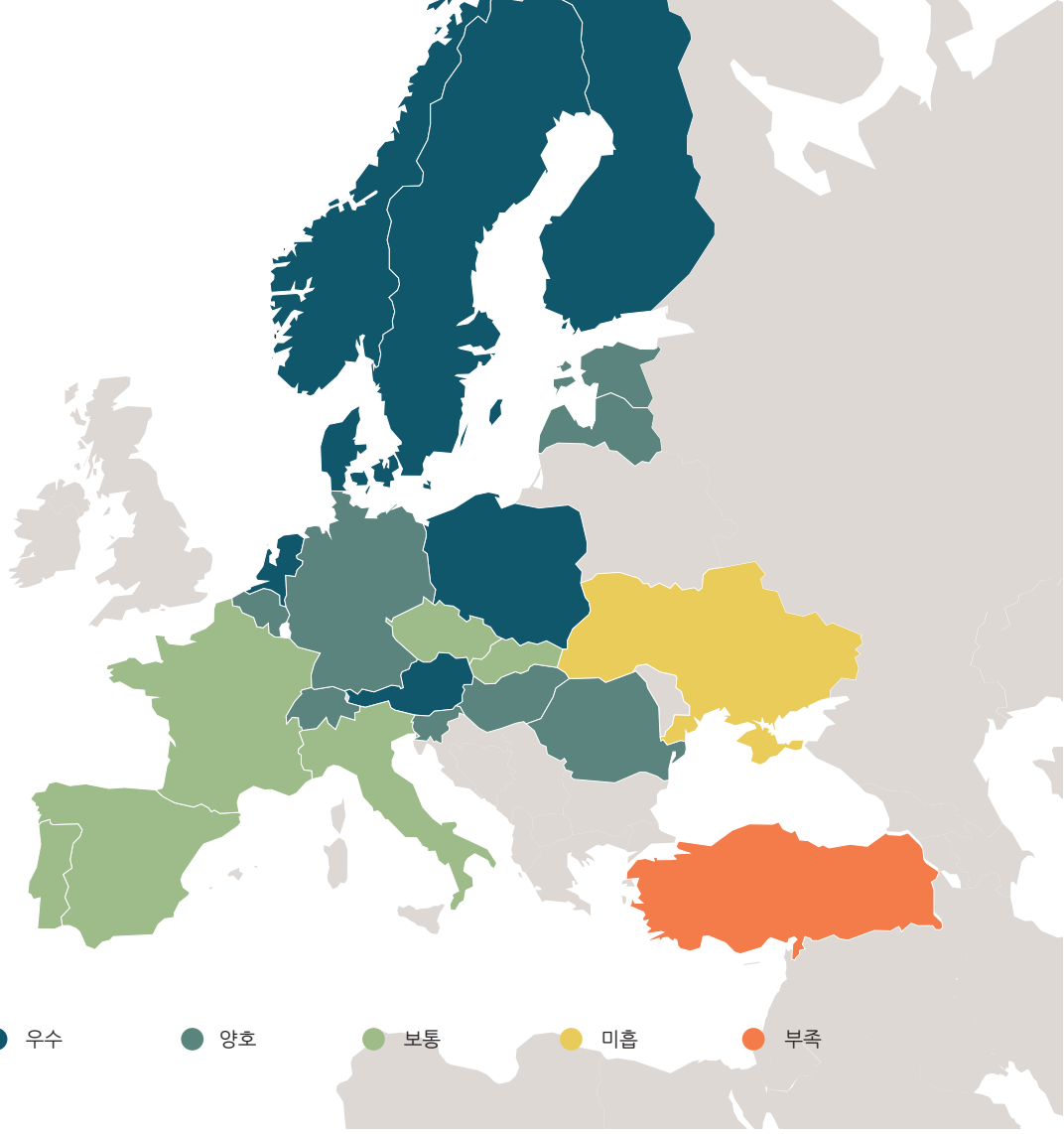
프랑스도 노르웨이와 마찬가지로 지역 트렌드에 역행하고 있는 국가이지만, 점수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걸음 상태입니다.

현재 유럽 연합 국가 중 성인 층의 영어 능력이 가장 떨어지는 프랑스는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에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한적인 외국어 교육 개혁 조치를 단행했지만 그 성과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영어 실력 향상이 국가적인 차원의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영어와 관련하여 공론이 형성되는 경우도 드물지만, 영어가 공식적으로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야 비로소 공개적인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프랑스의 기업들은 다른 나라의 기업들 못지않게 영어 실력을 중시하지만, 프랑스의 교육 제도는 그러한 요구와 단절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의 학부모들은 해외 여행, 개인 교습, 사립학교 등에 돈을 지출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이 영어 실력을 충분히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프랑스 학생들은 사교육을 통해 높은 수준의 영어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프랑스 교육 제도는 매우 불평등하므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와 같은 수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유럽 연합은 모든 시민들을 위해 명확한 다언어 사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료 수집 및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국들간에 언어 교육 모범사례를 공유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EU는 유럽 언어 공통 기준(CEFR)을 개발했습니다. CEFR은 영어는 물론이고 다른 모든 언어 능력 평가의 전 세계 표준이 되었습니다. 유럽 국가이든 비유럽 국가이든 이러한 자원을 활용하여 각국의 정책을 개선하는 것이 현명한 조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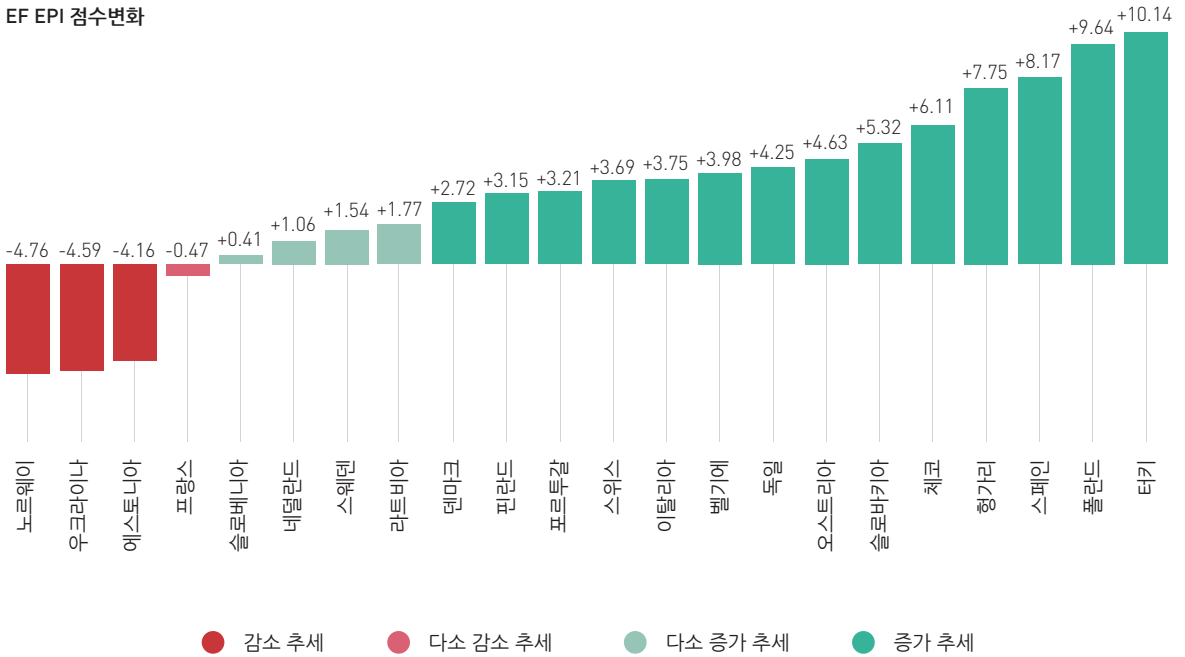
유럽



EF EPI 추세

이미 높은 영어실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유럽 국가의 영어실력은 계속 향상하고 있습니다. 2007년 이후 유럽의 EF EPI 지수는 3.59 점 상승했습니다. 또한 3개 국가만이 지수가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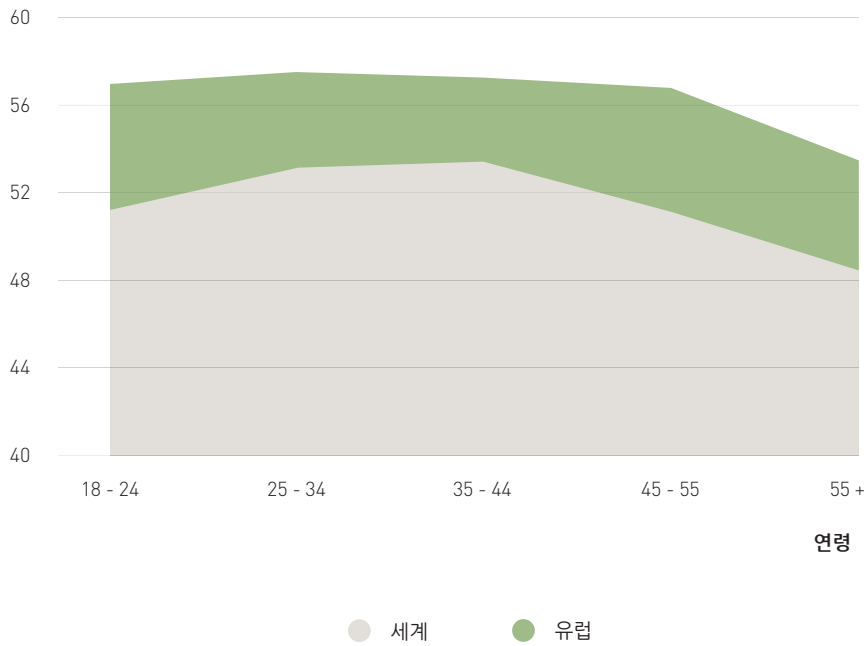
EF EPI 점수변화



연령대별 영어실력

유럽의 세대 간 격차는 44세 이하와 45세 이상의 연령대 사이에 존재합니다.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는 초기 성년기 연령대(18세~24세)의 실력이 한창 업무에 종사하는 연령대(25세~44세)의 실력에 뒤처지지만, 유럽의 경우에는 초기 성년기 연령대의 실력이 한창 업무에 종사하는 연령대의 실력과 비슷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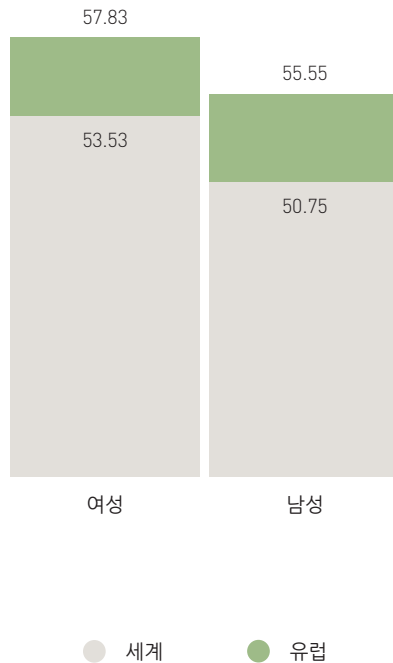
EF EPI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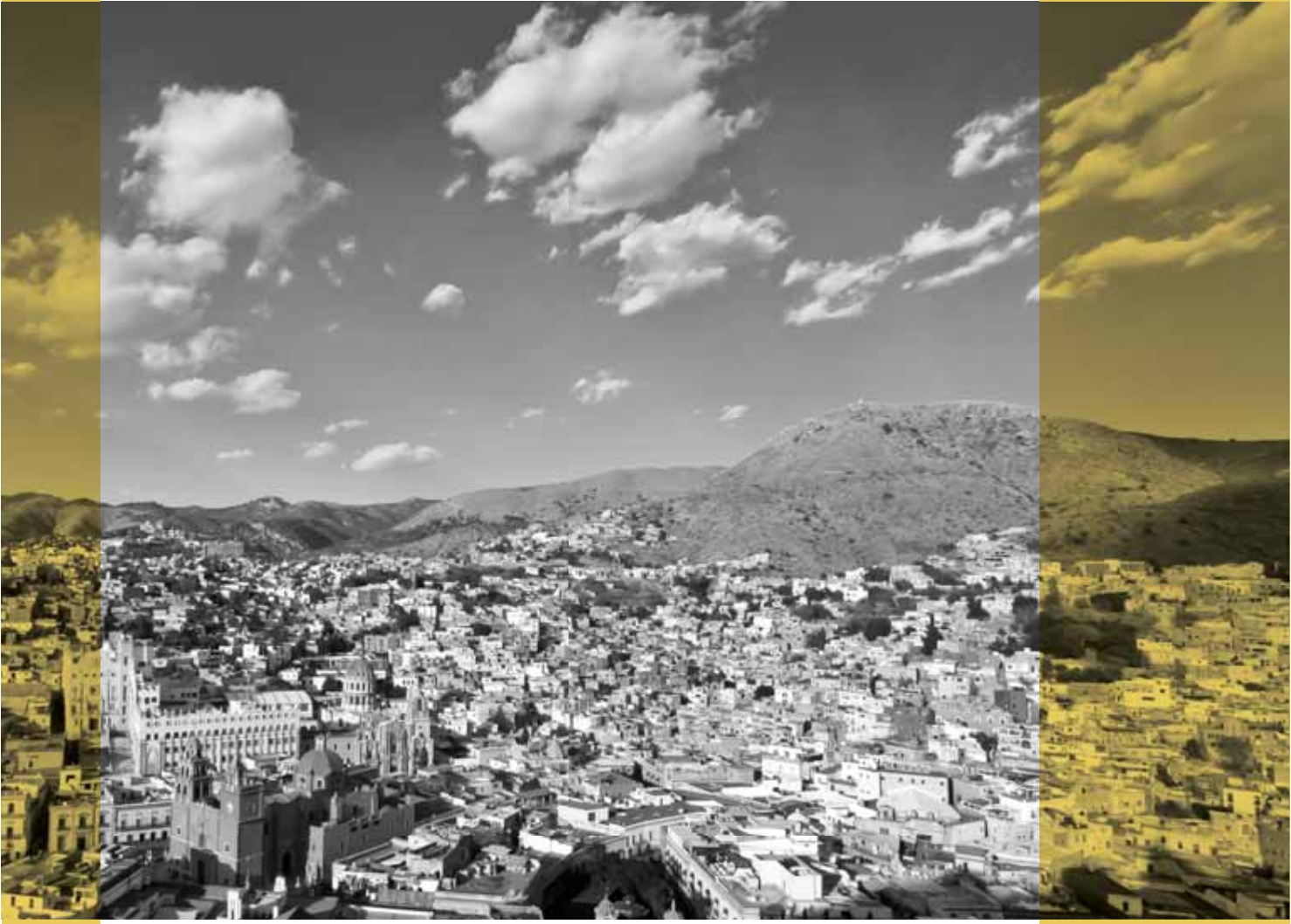


성별 영어 실력

유럽의 남성과 여성의 점수는 모두 글로벌 평균보다 크게 앞서지만, 유럽 여성의 영어 수준이 유럽 남성보다 우수합니다($p < .001$).

EF EPI 점수





중남미

영어실력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남미

중남미의 성인 영어 능력은 여전히 취약합니다. EF EPI에 포함된 14개 중남미 국가 중 12개국의 영어 능력이 '미흡' 수준입니다. 그러나 2007년 이후 중남미 지역의 평균 EF EPI 점수는 2.16점 상승했습니다.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및 페루의 점수는 평균 이상 상승했지만, 멕시코, 베네수엘라, 파나마,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및 엘살바도르의 영어 실력은 향상되지 않았습니다.

중남미의 성인 영어 능력은 여전히 취약합니다. EF EPI에 포함된 14개 중남미 국가 중 11개국의 영어 능력이 '미흡' 수준입니다. 그러나 2007년 이후 중남미 지역의 평균 EF EPI 점수는 2.16점 상승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및 페루의 점수는 평균 이상 상승했지만, 멕시코, 과테말라, 우루과이 및 엘살바도르의 영어 실력은 향상되지 않았습니다.

앞서가는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는 중남미 국가 중 영어 능력이 단연 가장 우수한 국가이며, 지속적으로 실력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공립학교 영어 교사가 되려면 대학원 과정 5년을 이수해야 하므로, 아르헨티나 영어 교사의 자질은 대체로 매우 우수합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2006년 국가 교육법'을 통해 외국어로서의 영어 의무 교육 대상을 모든 공립 학교의 4학년-12학년 학생으로 확대했습니다.

다니엘 시올리(Daniel Scioli)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지사는 아르헨티나가 국제 무역을 활성화하려면 영어는 필수라고 설명했습니다. 남미 5개국의 정치 및 경제 협력체인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이 최근 경기 침체에 빠지자, 아르헨티나는 이웃 국가들 이외의 더욱 다양한 무역 네트워크 형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르헨티나인들에게 우수한 영어 실력은 글로벌 시장 참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진전을 보이고 있는 도미니카 공화국, 칠레, 콜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의 EF EPI 점수는 2007년에 최하위 능력 수준에서 2013년에는 '보통' 능력 수준으로 발전하면서 중남미 국가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향상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은 미국이며, 수출의 51%와 수입의 약 40%가 대미 무역에서 발생합니다. 현재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는 전국적으로 100여 개의 영어 콜센터 업체가 35,000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도미니카 공화국 정부는 2,065명의 학생에게 해외 석사 과정 전액 장학금을 수여했으며, 영어 사용국들과 학문적인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칠레의 점수는 지난 7년에 걸쳐 4점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영어 교육에 대한 사적 및 공적 투자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3년에 칠레 교육부는 전국 규모의 영어 교육 개선을 위해 '영어 개방 프로그램'(English Opens Doors Program)을 시행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자격을 갖춘 1,800여 명의 영어 사용 자원 봉사자들을 영어 보조교사로 선발하여 전국의 공립 및 준사립 학교에서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영어 능력의 상당한 진전을 이룬 또 다른 국가인 콜롬비아도 유사한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통해 여러 영어 사용국 출신의 수많은 자원 봉사자들을 초청하여 국가 교육 서비스(National Training Service)의 졸업생 5,000여 명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2025년까지 이 지역 최고의 교육 제도를 확립할 것이라고 선언했으며, 영어를 스페인어 못지않게 중시하는 이중 언어 사용국이 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개혁에 실패한 멕시코

멕시코는 도미니카 공화국에 비해 미국과 훨씬 더 강력한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수출 상품의 70% 이상을 미국에 수출합니다. 그러나 멕시코의 교육 제도는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미국과의 경제적 협력 관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교육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9년에 멕시코 정부는 초등학교의 보편적인 영어 수업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특히 농촌 지역에서 교사들의 파업, 잦은 시위, 폭력 사태 등으로 인해 정책 시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상당수의 학교는 아직도 연방 정책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멕시코가 직면한 최대 교육 과제 중 하나는 정치색이 짙은 시스템 내에서 개혁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 성공한 코스타리카

멕시코가 정체 상태를 보인 반면, 코스타리카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0년에 수행된 한 연구에서 코스타리카의 영어 교사 중 95%가 중간 수준 이상의 실력을 갖춘 것으로 밝혀져, 교육부가 주도한 단단계 연수 프로그램의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코스타리카는 지난 7년간 성인 영어 실력의 큰 향상을 아직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교사들의 향상된 영어 실력이 다음 세대의 성인들에게 영향을 줄 것입니다.

2004년에서 2011년까지 중남미 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은 4.3%였지만, 현재는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한 요인들로 인해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PISA와 EF EPI를 비롯한 전 세계의 모든 주요 국제 교육 평가 조사는 중남미의 낮은 기본 교육 수준을 성장의 걸림돌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남미 국가들은 교육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중남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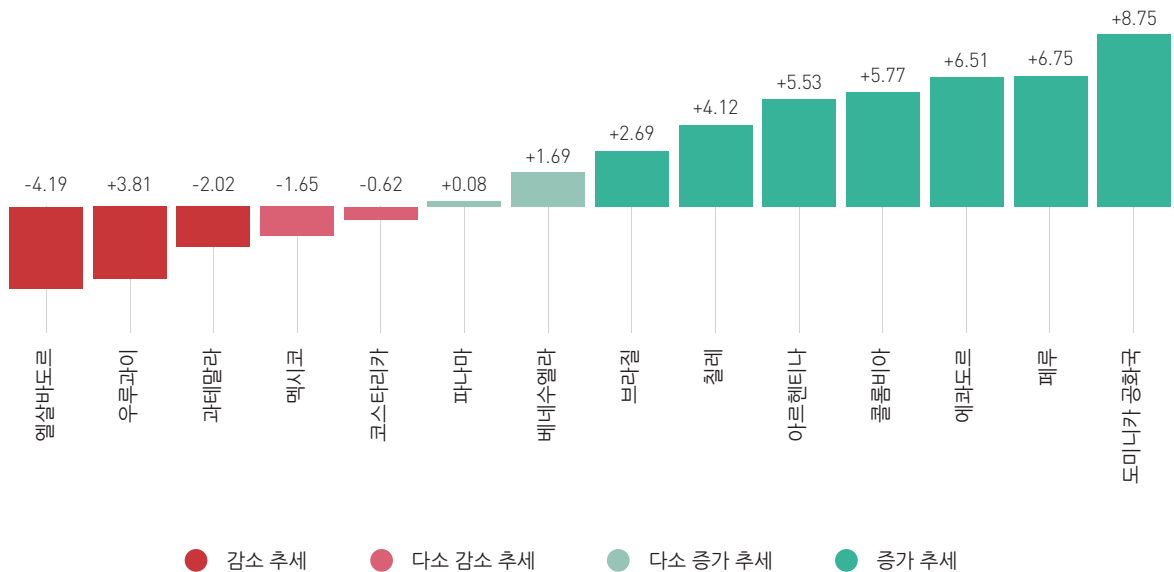


영어능력지수 레벨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부족

EF EPI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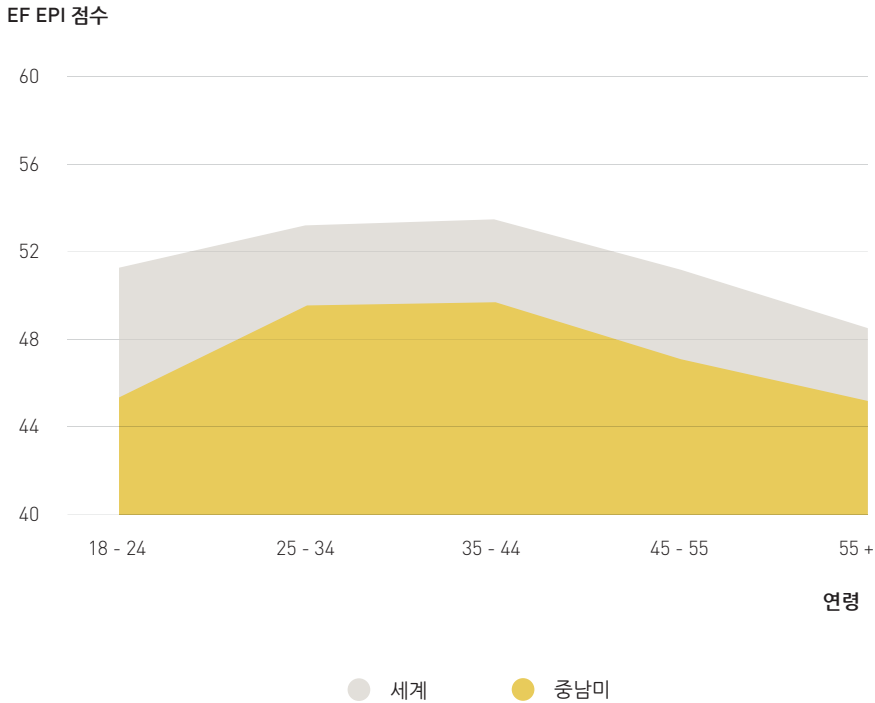
EF EPI에 포함된 14개 중남미 국가 중 11개국의 영어 능력이 '미흡' 수준입니다. 그러나 2007년 이후 중남미 지역의 평균 EF EPI 점수는 2.16점 상승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및 페루의 점수는 평균 이상 상승했습니다.

EF EPI 점수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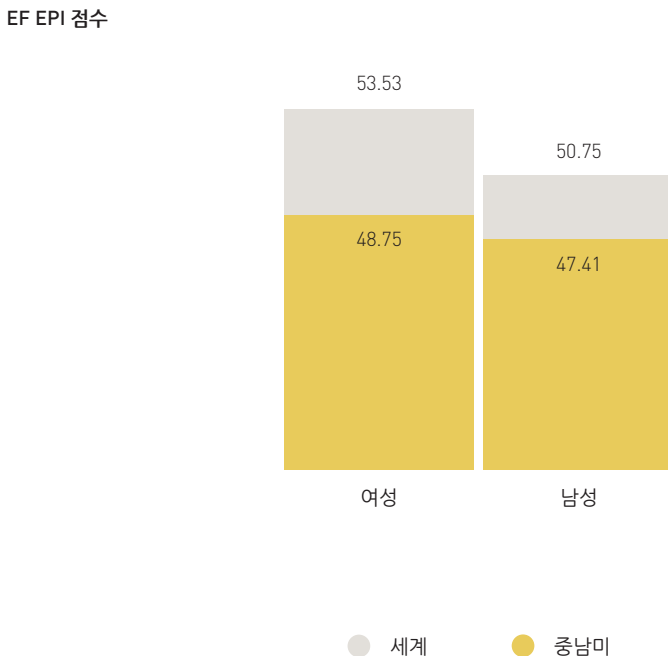
연령대별 영어실력

글로벌 트렌드와 마찬가지로 중남미에서는 한창 업무에 종사하는 연령대(25세-44세) 성인 층의 영어 능력 수준이 가장 우수합니다. 그러나 글로벌 트렌드와는 달리, 중남미의 초기 성년기 연령층의 영어 수준은 45세~54세 연령층의 성인보다 상당히 뒤쳐져 있으며 55세 이상 연령대 성인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성별 영어 실력

중남미 여성이 중남미 남성보다 영어 능력이 우수하지만($p < 0.001$), 이 두 집단은 세계 평균보다 상당히 뒤쳐져 있습니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영어실력이 낮아진 중동 및 북아프리카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는 영어 능력이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입니다. 올해 EF EPI에서 점수가 가장 낮은 10개국 중 8개국이 이 지역 국가입니다. 이 지역은 개발과 교육 지출 수준이 대부분의 아시아 지역과 유사하거나 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낮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ENA 국가들이 낮은 능력 수준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 7년간 이 국가들의 영어 실력 하락은 더욱 놀랍습니다. 요르단과 UAE를 제외하면 EF EPI의 모든 MENA 국가의 영어 실력이 상당히 하락했고, 일부 국가는 4점 이상의 현저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결과를 이해하는 데에는 응시자 분석이 도움됩니다. UAE, 쿠웨이트 및 카타르를 제외하고 MENA 지역의 인터넷 보급률은 60% 미만에 머물고 있지만, MENA 지역은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인터넷 이용이 늘어나면서,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응시자의 표본 대표성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지역 응시자의 표본 대표성이 강화되면서 평균적으로 이전의 표본에 비해 영어 실력이 하락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MENA 전 지역에서 모든 어린이를 위한 무상 교육 제공, 아동 취학을 향상, 양성 평등 참여 등의 분야에서 상당한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직면한 고질적인 교육적 과제의 상당수는 영어 교육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개혁을 필요로 하는 MENA 지역의 노동시장
MENA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교육 개혁을 단행하기 어려운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노동 시장의 구조입니다. 이 지역의 상당수 국가에서는 노동력의 약 50%를 공공 부문이 고용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은 비율입니다. 비대한 공공 부문이 종신 고용과 민간 부문에 비해 높은 임금을 보장해주므로 학생과 근로자들이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듭니다.

규모가 거대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비대해진 공공 부문은 대학 교육 제도를 통해 배출되는 유능한 졸업생을 모두 흡수할 수는 없는 구조이며, 이는 매우 높은 청년 실업률과 상당한 이주율로 이어집니다. 유럽으로 이주하는 인구가 비정상적으로 많아 이러한 이주자의 상당수가 일자리를 얻지 못합니다. 노동 시장의 이러한 비효율적 요인들 때문에 교육 개혁이

어려워집니다. 개혁의 이점들이 경제 성장이나 실업률 감소에 명확히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 제도에 부담이 되는 베이비붐 현상
이러한 제도적 문제는 MENA가 베이비붐 현상을 겪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더욱 심각해집니다. MENA 인구의 약 21%가 15세-25세의 연령대에 속하며, 45%는 15세 미만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출생률은 낮아졌지만, 각급 학교에 입학하는 어린 연령대의 인구가 많아 MENA 국가들의 교육 제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자료에 따르면 MENA 전 지역에서 갓 대학을 졸업한 연령대와 한창 업무에 종사하는 연령대의 세대 간 영어 능력 차이는 없습니다. 만약 각급 학교가 지금 당장이라도 효과적인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만 있다면, 베이비붐 현상 덕분에 인구가 많은 어린 연령대의 젊은이들이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성인의 평균 능력 수준이 급속히 향상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능력 수준 향상의 발생 징후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MENA의 예외국인 UAE

UAE는 다른 지역 국가들에 비해 영어 능력이 부족한 편이지만, MENA 지역에서는 영어 교육을 통해 거두어들이는 상대적인 성과가 돋보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두 차례의 교육 개혁에서 비롯됩니다. UAE는 1차 교육 개혁을 통해 교육 과정을 현대화하면서 교사와 교육 행정 인력의 연수를 강화했습니다. 2010년에 단행된 2차 교육 개혁은 최근의 일이며 성인 영어 능력에 끼친 영향을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할 수 있지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전국 단위의 시험에서는 이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 교육 개혁 덕분에 일부 교과목에서 영어를 수업 언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났고, 모든 교실에 기술이 도입되었으며, 모든 초등학교에서 영어 수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UAE에서는 상당수의 강의를 영어로 진행하므로 연방 대학교에 입학하려면 모든 학위 과정에서 영어가 필수입니다. 그러나 초·중등학교의 영어 교육이 불충분하여 연방 대학교 예산의 30%가 영어를 비롯한 보충 과정에 투입됩니다. 고등학교 졸업생이 1년이나 2년 동안 이런 보충 과정을 수강한 뒤에 정식 대학 과정 이수를 허용 받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대학 제도를 통해 이른바 K-12 교육 제도의 단점을 무리하게 보완하려는 시도는 분명 비효율적이고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MENA 지역의 경우, 교육 제도 개혁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경제적 동기 부여와 교육 목표를 일치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기술 가용성의 확대와 민간 부문의 대기업 성장을 위한 경제 구조 조정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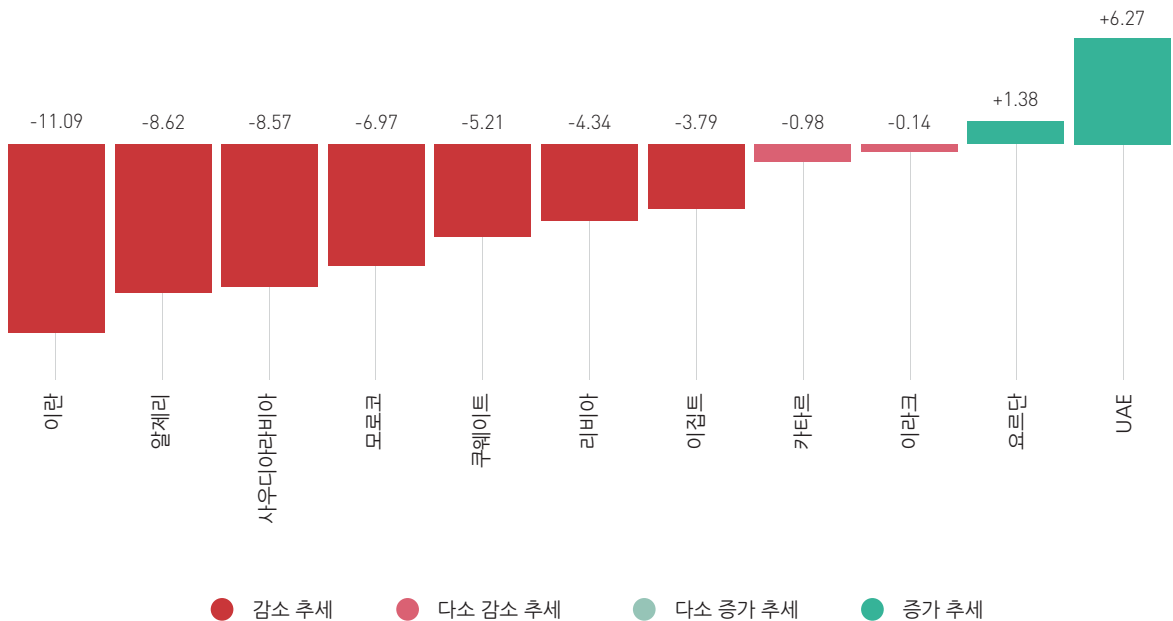
영어능력지수 레벨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부족

EF EPI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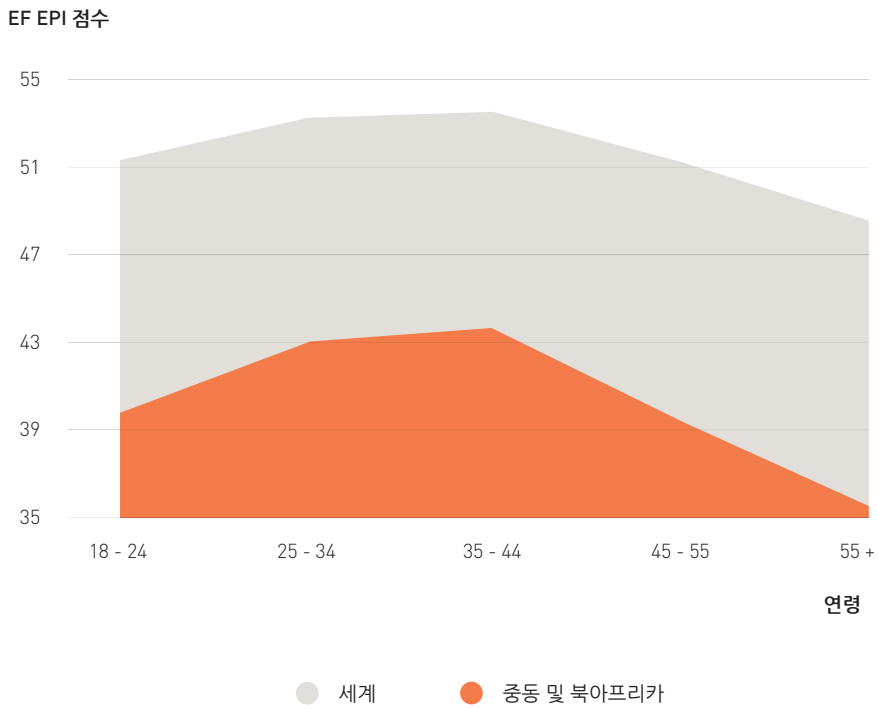
MENA 국가들이 낮은 능력 수준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 7년간 이 국가들의 영어 실력 하락은 더욱 놀랍습니다. 요르단과 UAE를 제외하면 EF EPI의 모든 MENA 국가의 영어 실력이 상당히 하락했고, 일부 국가는 4점 이상의 현저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EF EPI 점수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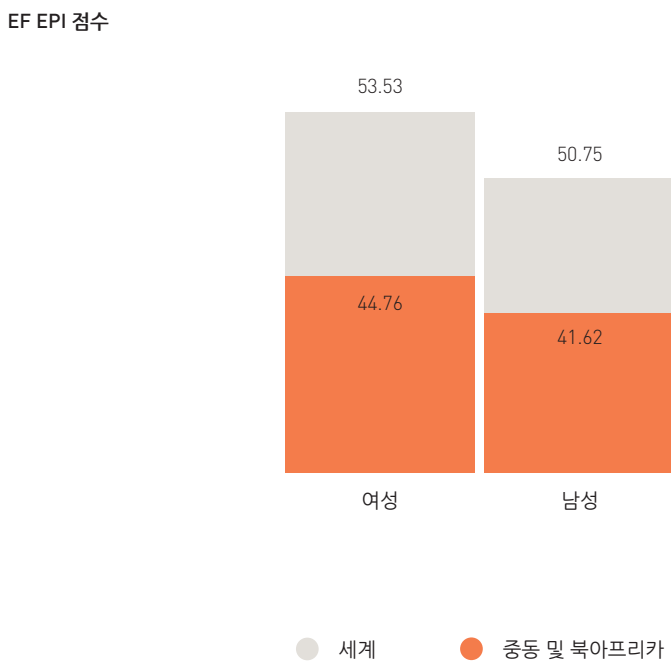
연령대별 영어실력

MENA의 세대 간 격차는 글로벌 트렌드와 일치합니다. 즉, 한창 업무에 종사하는 연령대(24세-44세) 성인 층의 영어 능력 수준이 가장 우수합니다. 초기 성년기 연령대(18세-24세)는 45세-54세의 연령대와 비슷하며, 55세 이상 연령대의 영어 실력이 가장 뒤쳐집니다.



성별 영어 실력

MENA 지역의 여성은 남성에 비해 성적이 상당히 좋지만($p < 0.001$), 이 지역 여성과 남성 모두 글로벌 평균보다 거의 10점이 낮습니다.



영어와 경제적 경쟁력

EF EPI 제1판 발표 이래, 국가의 영어 능력 수준과 다양한 사회 및 경제적 지표 사이에는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매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제2 언어의 구사는,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국제 무역과 외교에 필수적인 제2 언어의 구사는 사회 및 경제적 엘리트임을 나타내주는 지표였습니다. 영어의 영향력은 처음에는 대영제국의 시대에, 그 다음에는 미국의 전후 경제 팽창기에 확대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 영어는 교양있는 상류층임을 나타내주는 지표로서 과거에 프랑스어가 맡았던 역할을 대체했습니다. 그러나 국제화, 도시화 및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해 지난 20년간 영어의 역할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영어 능력은 엘리트와의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과거와는 달리 미국이나 영국과의 연계성도 높지 않습니다. 대신 영어는 전체 글로벌 인력 에 필요한 기본 능력의 성격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세기 동안 엘리트의 특권이었던 식자 능력이 교양 있는 시민의 기본 요건으로 변모한 상황과 비슷합니다.

우수한 영어 실력과 높은 소득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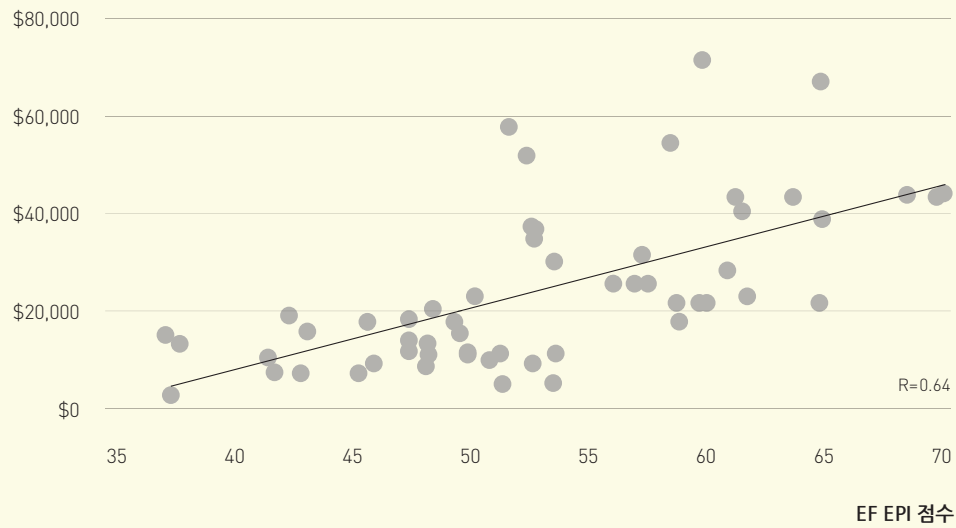
영어는 고용 자격 결정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도에서는 영어 구사 능력이 우수한 노동자가 영어를 전혀 구사할 수 없는 노동자에 비해 시간당 임금이 평균 34% 높고, 심지어 영어를 조금이라도 구사할 수 있는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이 영어를 전혀 구사할 수 없는 노동자에 비해 13% 높습니다.

영어 능력과 1인당 GNI의 관련성은 선순환 구조로서, 영어 실력이 우수하면 임금이 높아지고, 이는 다시 정부 및 개인이 영어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 확보로 이어집니다. 또한 이러한 관계는 보다 소규모 차원에서는 교훈으로 적용되어, 개인은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면 더 나은 직장을 구하여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영어와 소득수준

1인당 국민총소득 (단위:USD)



출처: 세계은행, 2012년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GNI(\$)

영어와 비즈니스 수행

높은 영어실력은 비즈니스를 용이하게 하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영어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어를 기업 공식 언어로 채택하지 않는 기업은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어로 비즈니스 수행하기

세계은행과 IFC의 비즈니스 수행 용이성 지수는 창업과 경영 기여도를 기준으로 전 세계의 경제 규제 환경 순위를 평가합니다. 이 지수에는 창업, 무역, 계약 이행, 청산 절차 등의 용이성을 비롯한 10개 하위 지수가 포함됩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영어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어를 기업 공식 언어로 채택하지 않는 기업은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어 능력이 우수한 경우, 영어가 공용어가 아닌 국가에서의 비즈니스 수행이 더 수월했습니다. 많은 기업(예: Rakuten, Nokia, 삼성, Renault 등)이 영어를 기업 공식 언어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영어 능력이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몇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공적인 해외 확장

글로벌화로 인해 점점 많은 기업이 해외로 눈을 돌리면서 비즈니스 수행 방식을 국제화하고 있습니다. JPMorgan Chase 조사에 따르면, 국제 시장에서의 비즈니스 수행에 적극성을 보인 중견기업의 비율이 2011년에 43%, 2012년에 58%였으며 2013년에는 61%로 높아졌습니다. 노동자와 기업이 해외 시장의 고객, 동료, 공급사, 협력사 등과 의사소통을 하는 일이 점점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직원들이 국제적으로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소통 부족으로 인한 손실의 최소화

다국적기업 경영자 5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Economic Intelligence Unit(EIU) 조사에서 거의 50%가 기본적인 의사소통 오해가 주요 국제 비즈니스 거래의 걸림돌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기업에 상당한 손실을 유발한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응답 비율은 브라질과 중국 기업의 경우 상당히 높아, 각각 74%와 61%가 그러한 손실을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사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즉, 언어와 문화적 차이는 비즈니스 성공을 가로막는 장벽이라는 것입니다.

EIU 연구에서 비즈니스 리더의 64%가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해외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기가 어려우며, 문화적 차이가 국제 확장 계획을 방해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리더의 70%는 비즈니스 당사자들과의 의사소통에 종종 어려움을 겪는다고 밝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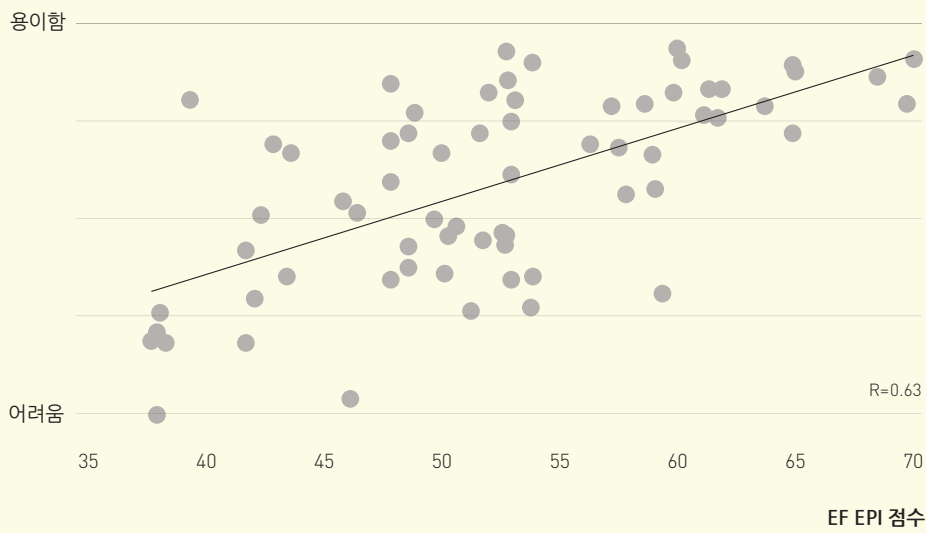
수익성 개선

EIU의 조사대상 경영자 572명 중 약 90%는 만약 자신의 회사에서 국제 의사소통이 개선된다면, 사업확장 기회가 늘어나고 매출 손실 가능성이 낮아져 수익, 매출 및 시장점유율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2014년에 Illuminas가 수행한 별도 연구에 따르면, 직원 영어 교육에 투자한 글로벌 기업 의사결정자 중 79%가 매출 증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의 비즈니스 상의 장점으로는 직원 의사소통, 직원 생산성 및 고객 만족도의 개선 등이 있습니다.



영어와 비즈니스

비즈니스 수행의 용이성 점수



출처: 세계은행과 IFC의 2013년 비즈니스 수행 용이성 지수

영어와 삶의 질

인간개발지수와 레가툼 번영지수 등의 삶의 질 관련 지수는 EF EPI와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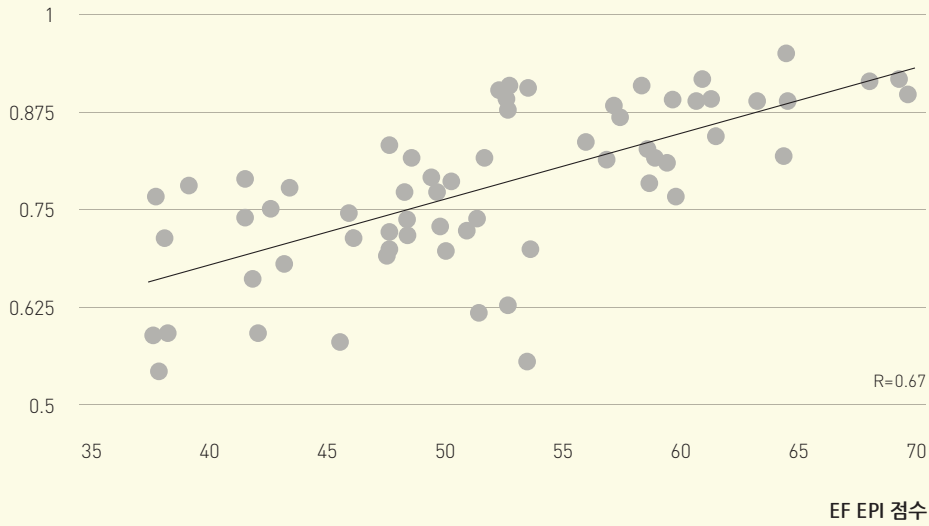
많은 개발 도상국의 경우, 영어는 일종의 사치로 간주되어 사립학교와 대학교에서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어 능력이 취업과 직업적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하지만, 개인의 발전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례들이 영어가 오늘날 필수적인 능력임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영어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어온 것을 볼때, 현재의 어린이들이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시기가 되면 그들의 영어 실무 지식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인간개발지수와 레가툼 번영지수 등의 삶의 질 관련 지수는 EF EPI와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인간개발지수는 교육 성취도, 기대 수명, 소득 등을 고려하지만 레가툼 번영지수에는 경제 성장, 기업이 정신 및 기회, 통치방식, 교육, 보건, 안전 및 안보, 개인적 자유, 사회자본 등이 포함됩니다.

영어 능력이 '보통'이거나 '미흡' 수준인 국가 중에도 높은 개발 수준을 자랑하는 일부 국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수'나 '양호' 수준인 국가들은 하나같이 인간개발지수와 레가툼 번영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이러한 국가들은 높은 삶의 질을 뒷받침하는 탄탄하고 안정적인 국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영어와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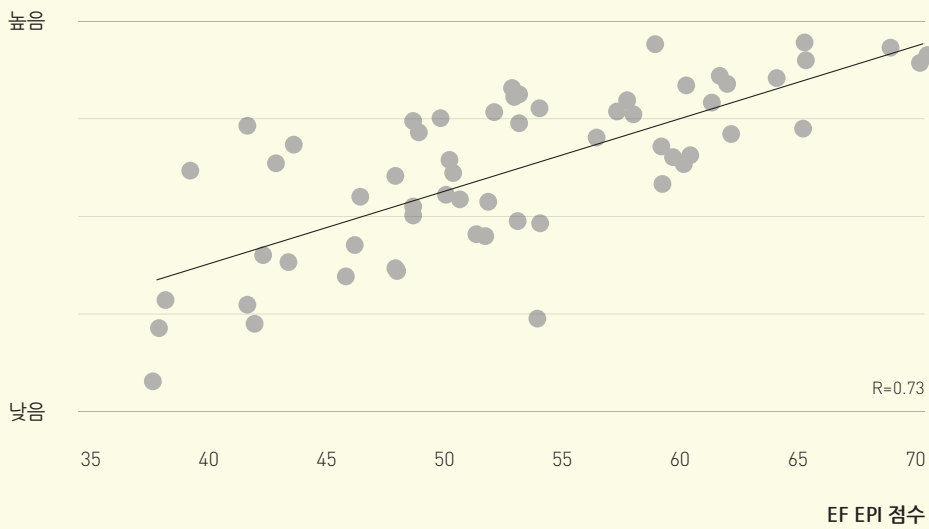
인간개발지수(HDI)



출처: 2012년 UN 인간개발 보고서

영어와 번영

레가툼 번영지수



출처: 레가툼 연구소, 2013년

영어와 공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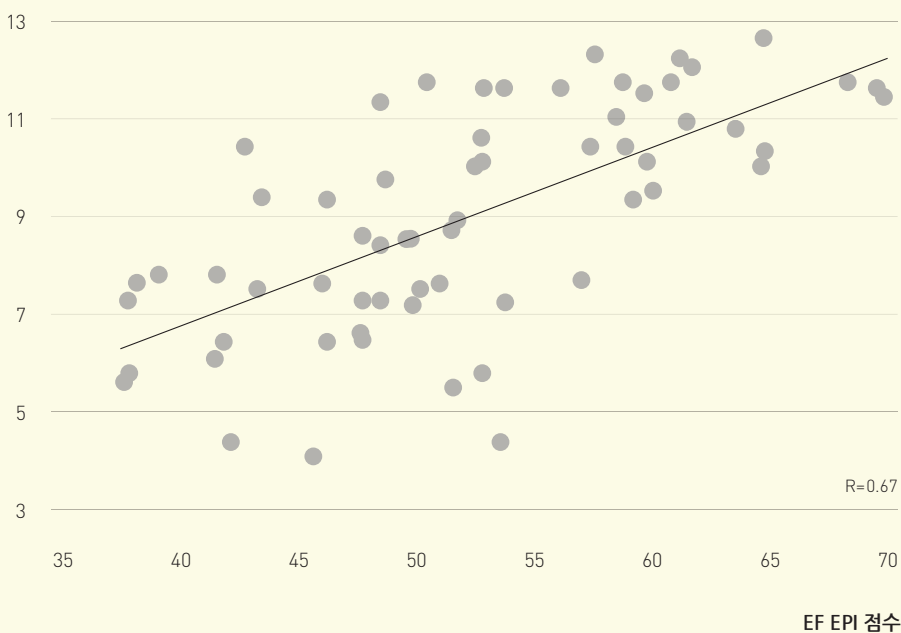
정치, 경제 및 문화적 환경에 따라 교육 제도는 다양하지만, 평균 교육 연수와 영어 능력 사이에는 강력한 상관관계가 존재합니다.

영어 교육을 주로 제공하는 주체는 국가의 교육 제도입니다.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립학교와 대학 제도를 통해 정식 교육을 받았고, 그러한 시스템에 의지하여 적합한 자격 목표를 설정했으며, 교육 과정과 교수법을 자신들에 맞게 조정했고, 학위 취득 전에 성과를 평가했습니다. 정치, 경제 및 문화적

환경에 따라 교육 제도는 다양하지만, 평균 교육 연수와 영어 능력 사이에는 강력한 상관관계가 존재합니다. 영어 능력 향상과 그에 따른 혜택을 기대하는 국가는 모든 어린 학생들이 영어를 익힐 수 있도록 학교에서 충분히 긴 기간 동안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영어와 학교 교육

평균 교육 연수



출처: UNDP, 2012년

영어와 기술

기술 발달에 힘입어 학생들은 영어를 더욱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영어 능력이 우수한 국가는 인터넷 보급률도 높았습니다.

기술 발달에 힘입어 학생들은 영어를 더욱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영어 능력이 우수한 국가는 인터넷 보급률도 높았습니다. 온라인 도구의 활용은 일종의 자기 강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영어 실력이 향상되면 온라인 도구나 리소스에 더 자주 접근할 수 있고, 이러한 리소스에 접근하면 영어 실력이 향상되는 식입니다. 영어 능력이 낮은 국가에서는 온라인 도구가 영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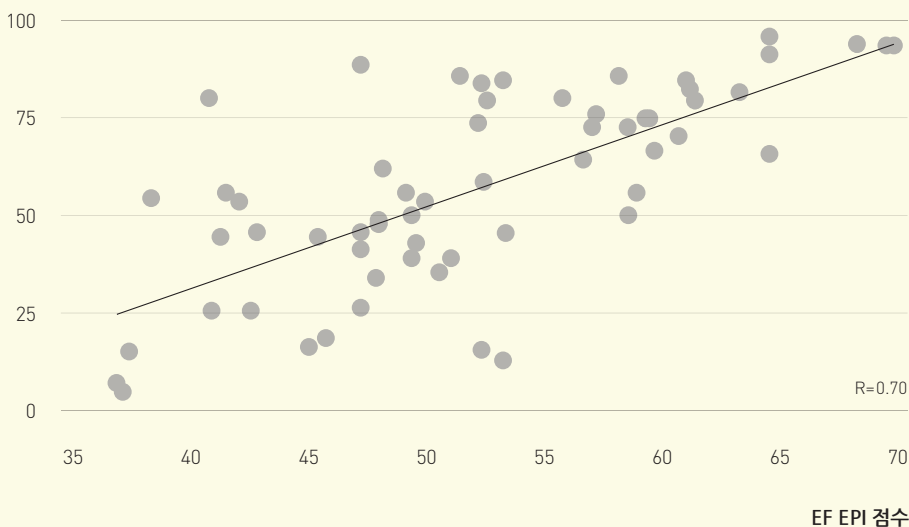
학습의 개인화, 상호작용성 및 접근성 강화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어를 구사하려면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은 영어 학습자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경계 없는 플랫폼을 지원합니다. Euromonitor International의 2012년 보고서에 따르면,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젊은이들의 가장 강력한 영어 학습 동기 중 하나는 온라인

소셜 네트워킹 참여 열의임을 보여줍니다. 자기 주도 학습, MOOC, 교실 트위닝(classroom twinning) 등은 모두 가정과 학교에서의 인터넷 접속을 통해 가능하며 이에 의존합니다. 언어 수업의 기술 활용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는 이 분야에 아직 상당한 발전의 여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영어와 인터넷 보급

100명 당 인터넷 사용자 수



출처: 세계은행, 2012년

결론

영어가 매년 국제 공통어로 더욱 빈번하게 채택되고 있지만, 교육 제도와 사회가 영어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의 영어 수요는 높으며, 상당수 국가는 그러한 수요 충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우리의 연구는 대부분의 국가가 성인 영어 능력 수준을 성공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지만, 일부 국가는 비효과적인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있으며, 상당수 국가는 국가 차원의 포괄적인 계획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주로 학부모, 직장인 및 기업의 개별적인 노력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영어 능력이 향상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개인과 기업이 자체 영어 교육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은 학교 제도와 공공 프로그램이 충분치 못함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성공적인 개혁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적인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 제도 정비: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중등학교 수업을 소화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하고, 중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보충 과정에 의지하지 않고 곧바로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비를 위해서는 지역 및 정부 부서전체에 걸친 조정이 필수적입니다.
- 영어 능력 핵심 역량 규정: 모든 졸업자들에 대해 영어 능력을 핵심 역량으로 규정하고, 공식적으로 영어의 중요성을 인정하면 여러 정부 기관의 정비와 개혁 모멘텀 생성에 도움이 됩니다.

- 포괄적인 연수 프로그램: 의사소통 능력과 멘토링을 강조하는 모든 영어 교사를 위한 포괄적인 연수를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영어를 교육의 매개체로 활용: 공립 학교 제도의 다양한 수준에서 영어를 교육의 매개체로 사용하려는 계획을 연구해보면 영어 학습과 해당 과목 학습 사이에는 실질적인 상충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어 능력이 향상되면서 그러한 격차는 줄어듭니다.

- 효과적인 의사소통 평가기준개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평가하는 측정 기준을 만들어 학생과 교사에게 가장 유용한 외국어 능력에 집중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 성인 영어 학습지원: 성인층은 시간과 지침이 부족한 경우가 종종 있지만 학습 동기는 충분합니다. 성인들의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하려면 목표의 명확화와 진도 측정을 위한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 해외 유학 장벽 낮춤: 외국과의 비자 협정 교섭, 무료 영어 시험 및 장학금 지원, 계좌 이체의 표준화, 공식적인 연구 파트너십 확립 등을 통해 해외 유학 관련 장벽을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 기업을 영어 교육에 대한 주요 투자자로 인정비즈니스는 영어 사용자 수요를 늘릴 뿐 아니라, 수요 충족에 보탬이 되기도 합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직원 영어 교육에 투자하지만, 그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불투명한 경우가 흔합니다. 교육 기관이 교육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기업에 모범 사례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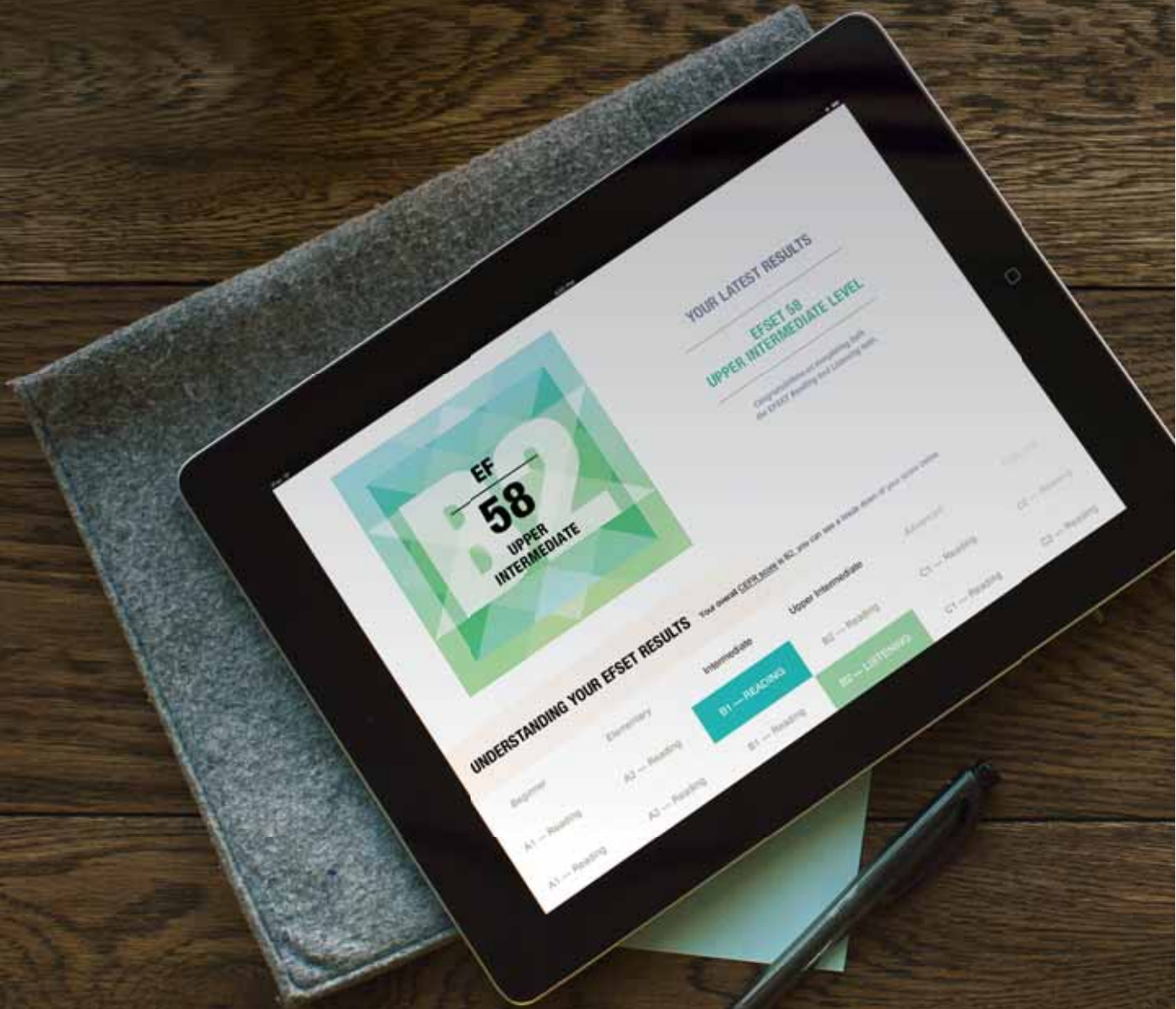
영어 교육 프로그램 성과 측정, 채용요건명시 등을 권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적 관심이 집중되고 동기가 부여되면 학습 가능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 국제행사 활용: 올림픽이나 월드컵같은 국제행사를 영어 능력 향상 캠페인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국가적 관심이 집중되고 사람들의 에너지가 모이면 학습 동기부여가 일어납니다.

다른 국가들의 노력을 평가함으로써 개인, 정부 및 기업은 가장 흔한 어려움을 피할 수 있으며,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해법은 없지만, 국제적인 모범 관행은 꾸준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고서를 통해 그러한 모범 관행의 일부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려 했습니다.



전망: EF EPI와 언어 평가의 혁신



세계: www.efset.org
중국: www.efset.cn

2011년에 첫선을 보인 후 EF EP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개인, 최고학습경영자(CLO), 정책 입안자 등이 저비용의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영어 능력을 효과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Cambridge English FCE, TOEFL, TOEIC, IELTS 등과 같은 기존의 표준화된 영어 시험은 수준이 매우 높지만 응시료가 부담스럽습니다.

또한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Cambridge English FCE, TOEFL, TOEIC, IELTS 등의 시험을 치르지만, 이들 응시자는 20억 명에 이르는 전체 영어 학습자의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개별 영어 학습자, 그리고 기업, 정부 등의 기관은 양질의 표준 영어 시험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EF는 EF 표준 영어 시험(EF Standard English Test:EFSET)을 개발했습니다. 다른 표준 영어 시험과 동일한 기준으로 개발된 무료 영어 시험인 EFSET은 증명 기반의 연구와 분석을 토대로 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출제자들이 개발한 평가 문항은 전문가들의 철저한 검토를 거쳤고, 여러 가지 언어 학습 환경의 다양한 학습자 그룹을 대상으로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계량심리학자들과 시험 개발담당자들이 시험 자료를 분석하고, 실제 EFSET에 반영하기 위한 조정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모든 학습자들이 양질의 영어 시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EFSET은 온라인(www.efset.org)에서 무료로 제공됩니다. EFSET 응시자 성적은 앞으로 EF EPI에서 활용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EF EPI는 성인 영어 능력 평가의 국제적 기준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EF STANDARD ENGLISH TEST

EF EPI 소개

평가 방법

EF 영어 능력 지수는 매년 수십 만 명의 성인들이 치르는 EF 영어 시험 2종의 자료를 활용하여 각국 성인의 평균 영어 능력 수준을 평가합니다. 그중 하나는 인터넷 이용자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온라인 등급 평가 시험이며, EF는 영어 강좌 등록 과정에서 이 시험 성적을 활용합니다. 이 두 시험은 문법, 어휘, 독해 및 듣기 평가로 구성됩니다.

공개 온라인 시험은 30문항으로 구성된 적응형 시험이므로, 각 응시자의 문항 난이도는 이전 문항의 정답 여부에 따라 조정됩니다. 비적응형 등급 평가 시험은 70문항으로 구성됩니다. 모든 점수는 EF의 강좌 수준을 기준으로 책정했습니다. 이 두 시험의 시험 관리 방식은 동일하여, 응시자는 컴퓨터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시험 성적이 우수하다고 자격증을 발급 받거나 프로그램 수강 허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응시자는 부정 행위나 암기식 학습을 통해 무리하게 시험 성적을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응시자

EF EPI 제4판은 응시자 75만 명의 2013년 시험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했습니다. 응시자가 400명 미만인 국가는 EF EPI에서 제외했습니다. 총 응시자 수와 상관없이 두 시험 중 어느 한 시험의 응시자가 100명 미만인 국가도 제외했습니다. 총 63개국 및 자치령이 EF EPI에 포함되었습니다.

본사는 EF EPI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시험을 치렀으며, 해당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이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영어 학습을 원하거나 영어 능력 평가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만 이 두 가지 시험 가운데 한 시험에 응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험 점수는 전체 인구의 정확한 점수보다 높거나 낮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시험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므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거나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이용률이 낮은 국가에서는 그러한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표본 추출 편향으로 인해 가난하고 교육 수준이 낮으며 혜택을 덜 받는 사람들이 제외되어 점수가 더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정 국가의 EF EPI 점수 산정을 위해, 각 시험 점수를 표준화하여 전체 문항 수에 따라 해당 시험에 맞추어 백분율을 산출했습니다. 특정 국가의 모든 점수는 2가지 시험의 평균으로 산정하여, 각 시험에 동등한 가중치를 부여했습니다.

점수를 기준으로 각국에 영어 능력 수준을 부여했습니다. 이러한 능력 수준을 통해 영어 실력이 비슷한 국가 그룹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지역 내부와 각 지역 간 국가들을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능력 수준은 유럽 언어 공통 기준(CEFR)과 EF강좌 수준과 일치합니다. '우수' 능력 수준은 CEFR 레벨 B2에 해당합니다. '양호', '보통' 및 '미흡' 능력 수준은 CEFR 레벨 B1에 해당하며, 각각의 수준은 EF 강좌 수준에 해당합니다. '부족' 능력 수준은 CEFR 레벨 A2에 해당합니다. 각 수준에 속하는 영어 사용자의 능력에 관한 세부 사항을 확인하려면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F EDUCATION FIRST에 대하여

EF Education First(www.ef.co.kr)는 언어, 학문 및 문화 교류를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는 글로벌 교육 기업입니다. 1965년에 설립된 EF의 미션은 "교육을 통해 세계의 문화를 개방한다"입니다. 전 세계 50여 개 국가에서 500개에 이르는 학교와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EF는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하계 올림픽 공식 외국어 교육 제공 기업입니다. EF 영어 능력 지수(www.ef.co.kr/epi)는 EF Education First의 리서치와 이노베이션을 담당하는 EF Learning Labs가 발표합니다.

CEFR 레벨과 단계별 능력설명

능숙한 영어 사용자	C2	읽고 들은 모든 것을 쉽게 이해한다. 다양한 채널에서 읽고 들은 정보를 요약하거나 논리를 재구성하고, 또 일관성 있는 설명도 할 수 있다. 미리 계획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즉흥적으로 자연스럽게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으며, 복잡하고 미묘한 의미의 차이도 구별하여 정확하게 소통할 수 있다.
	C1	길고 어려운 문장들을 이해할 수 있고 함축적인 표현들도 인식할 수 있다. 표현에 있어 큰 어려움 없이 즉흥적으로 자연스럽게 자기 의견을 나타낼 수 있으며 상황에 맞춰 사회적, 문학적, 전문적인 언어구사를 할 수 있다. 복잡한 주제에도 적절한 언어의 패턴, 접속어, 연결어 등을 사용하여 명확하고 상세한 문장을 만들 수 있다.
독립적인 영어 사용자	B2	자신의 전문분야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논의를 포함하여, 구체적이거나 추상적인 주제에 관한 복잡한 지문의 핵심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다. 어느정도 유창함과 자연스러움이 있어 별 막힘없이 원어민과 대화가 가능하다. 다양한 주제에 관해 뚜렷하고 자세한 문장을 만들 수 있으며, 일정한 주제에 대한 관점을 여러 장단점을 열거하며 표명할 수 있다.
	B1	직장, 학교, 여가생활 등에서 자주 접하는 익숙한 주제의 핵심을 이해한다. 여행중일때 일어나는 대부분의 상황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다. 익숙하거나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주제에 관련된 간단한 문장을 만들 수 있다. 경험, 사건, 꿈, 희망, 의견, 계획 등을 묘사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의견이나 계획에 대한 이유와 설명을 간단하게 덧붙일 수 있다.
기본 영어 사용자	A2	자신과 가장 밀접한 주제 (아주 기본적인 개인신상정보, 가족, 쇼핑, 지리, 직업)에 관한 문장과 자주 사용되는 표현을 이해한다. 잘 알고 있거나 자주 일어나는 일에 대해 간단하고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간단한 문장으로 개인신상정보, 현재 상황, 사건, 급히 필요한 것에 대해 말할 수 있다.
	A1	구체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문구와 매일 사용되는 일상적인 표현을 이해한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 소개를 할 수 있고 사는 장소, 아는 사람, 소지품 등에 대해 질문하고 답할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상대방이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준다면 간단한 커뮤니케이션은 가능하다.

EF EPI 국가별 순위

지난 7년간의 영어능력 변화 확인:

아래 표는 제1판과 제4판 사이의 EF EPI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2점 이상 점수가 향상하거나 감소한 국가는 영어 능력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EF EPI 1판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2판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판은 2012년, 4판은 2013년의 시험 결과를 토대로 집계되었습니다.

국가	EF EPI 제1판 점수	EF EPI 제4판 점수	점수변화
알제리	47.13*	38.51	-8.62
아르헨티나	53.49	59.02	+5.53
오스트리아	58.58	63.21	+4.63
벨기에	57.23	61.21	+3.98
브라질	47.27	49.96	+2.69
캄보디아	—	38.25	new
칠레	44.63	48.75	+4.12
중국	47.62	50.15	+2.53
콜롬비아	42.77	48.54	+5.77
코스타리카	49.15	48.53	-0.62
체코 공화국	51.31	57.42	+6.11
덴마크	66.58	69.30	+2.72
도미니카 공화국	44.91	53.66	+8.75
에콰도르	44.54	51.05	+6.51
이집트	45.92*	42.13	-3.79
엘살바도르	47.65	43.46	-4.19
에스토니아	65.55#	61.39	-4.16
핀란드	61.25	64.40	+3.15
프랑스	53.16	52.69	-0.47
독일	56.64	60.89	+4.25
과테말라	47.80	45.77	-2.03
홍콩	54.44	52.50	-1.94
헝가리	50.80	58.55	+7.75
인도	47.35	53.54	+6.19
인도네시아	44.78	52.74	+7.96
이란	52.92*	41.83	-11.09
이라크	38.16#	38.02	-0.14
이탈리아	49.05	52.80	+3.75
일본	54.17	52.88	-1.29
요르단	46.44#	47.82	+1.38
카자흐스탄	31.74	42.97	+11.23
쿠웨이트	47.01*	41.80	-5.21

국가	EF EPI 제1판 점수	EF EPI 제4판 점수	점수변화
라트비아	57.66 [#]	59.43	+1.77
리비아	42.53 [*]	38.19	-4.34
말레이시아	55.54	59.73	+4.19
멕시코	51.48	49.83	-1.65
모로코	49.40 [*]	42.43	-6.97
네덜란드	67.93	68.99	+1.06
노르웨이	69.09	64.33	-4.76
파나마	43.62	43.70	+0.08
페루	44.71	51.46	+6.75
폴란드	54.62	64.26	+9.64
포르투갈	53.62	56.83	+3.21
카타르	48.79 [*]	47.81	-0.98
루마니아	—	58.63	new
러시아	45.79	50.44	+4.65
사우디아라비아	48.05	39.48	-8.57
싱가포르	58.65 [*]	59.58	+0.93
슬로바키아	50.64	55.96	+5.32
슬로베니아	60.19 [#]	60.60	+0.41
대한민국	54.19	53.62	-0.57
스페인	49.01	57.18	+8.17
스리랑카	51.47 [#]	46.37	-5.10
스웨덴	66.26	67.80	+1.54
스위스	54.60	58.29	+3.69
대만	48.93	52.56	+3.63
태국	39.41	47.79	+8.38
터키	37.66	47.80	+10.14
우크라이나	53.09 [#]	48.50	-4.59
UAE	45.53 [*]	51.80	+6.27
우루과이	53.42 [*]	49.61	-3.81
베네수엘라	44.43	46.12	+1.69
베트남	44.32	51.57	+7.25

*해당 국가가 EF EPI 제1판에 없었기 때문에 EF EPI 제2판의 점수를 사용하였다.

#해당 국가가 EF EPI 제1, 2판에 없었기 때문에 EF EPI 제3판의 점수를 사용하였다.

참조

- Bolton, Kingsley, ed. *Hong Kong English: Autonomy and Creativity*.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2002.
- Cabrales, Antonio, Brindusa Anghel, and Jesús M. Carro. *Evaluating a bilingual education program in Spain: the impact beyond foreign language learning*. London: Centr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2012.
- Council of Europe.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Learning, Teaching, Assess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 De Lotbinière, Max. "Test for teachers kicks off Malaysia's push for English." 16 October 2012. *The Guardian*.
<http://www.theguardian.com/education/2012/oct/16/malaysia-internationaleducationnews>.
- Harris, Gill. "Despite a troubled history, Argentina still needs the English language." 10 March 2014. *The Guardian*.
<http://www.theguardian.com/education/2014/mar/10/argentina-economic-stability-english-language>
- Hicks, Bill. "Poland scores late goals in education." 12 June 2012. *BBC News*.
<http://www.bbc.com/news/business-18151512>.
- Howson, Paul. *The English Effect*. London: British Council, 2013.
- Jung, Min-ho, and Jung Sung-eun. "Questions remain over billions blown on NEAT." 21 May 2014. *The Korea Times*.
http://www.koreatimes.co.kr/www/news/nation/2014/05/181_157589.html
- Kameda, Masaaki. "Education ministry body to roll out English-only meetings." 30 April 2014. *The Japan Times*.
http://www.japantimes.co.jp/news/2014/04/30/national/education-ministry-body-roll-english-meetings/#.U4Kd_pSSxZ6
- Meganathan, Ramanujam. "Language policy in education and the role of English in India: From library language to language of empowerment." *Dreams and Realities: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English Language*. Ed. Hywel Coleman. London: British Council, 2011. 59-88.
- Minder, Raphael. "In Troubled Spain, Boom Times for Foreign Languages." 30 March 2011. *The New York Times*.
http://www.nytimes.com/2011/03/30/world/europe/30iht-spain30.html?pagewanted=all&_r=1&
- Ministry of Education, Chile. Programa Inglés Abre Puertas. 2014.
<http://www.ingles.mineduc.cl/>
-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Hungary. *Education in Hungary: Past, Present, Future - An Overview*. Budapest: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Hungary, 2008.
- Murphy, Colum. "English May Be Losing Its Luster in China." 7 November 2013. *The Wall Street Journal*.
<http://blogs.wsj.com/chinarealtime/2013/11/07/learning-english-may-be-losing-its-luster-in-china/>
- Neeley, Tsedal. "Global Business Speaks English." *Harvard Business Review* (2012): 116-124.
- The Observatory of Economic Complexity. Imports and Trade Partners. OEC: Mexico Profile of Exports, Imports and Trading Partners. 2011.
<http://atlas.media.mit.edu/profile/country/dom/>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PISA 2012 Results in Focus*. 2012.
<http://www.oecd.org/pisa/keyfindings/pisa-2012-results-overview.pdf>
- Porto, Melina. "The Role and Status of English in Spanish-Speaking Argentina and Its Education System: Nationalism or Imperialism?" *SAGE Open* (2014): 1-14.
- StudentMarketing Ltd. *English Language Market Report: Russia*. London: British Council, 2013.
- The World Bank. *The Road Not Traveled: Education Reform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Washington, D. C.: The World Bank, 2008.

WWW.EF.CO/KR/EPI 에서 EF EPI 자료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EF ENGLISH PROFICIENCY INDEX
제1판 (2011)



EF ENGLISH PROFICIENCY INDEX
제2판 (2012)



EF ENGLISH PROFICIENCY INDEX
제3판 (2013)



EF ENGLISH PROFICIENCY INDEX
제4판 (2014)



CONTACT US
www.ef.co.kr/epi

EF EPI

EF English Proficiency Index